김정일장군님은
조국통일의 구성!
김정일장군님을
통일대통령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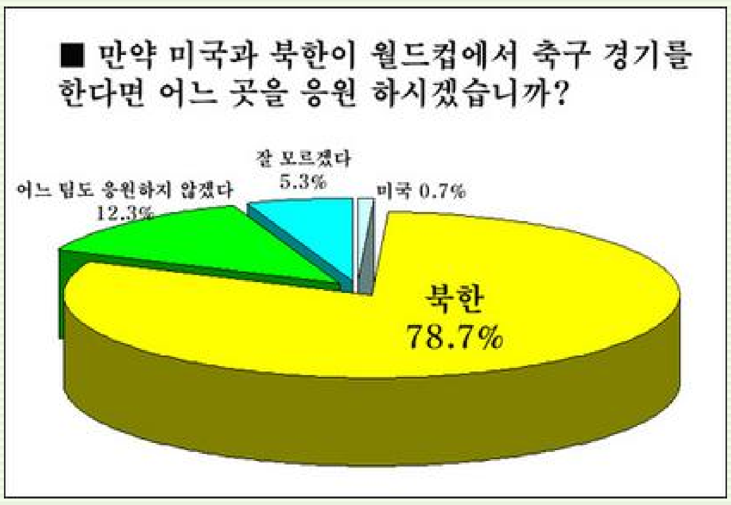
통일아리랑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자!

2002년 4월 9일 화요일 ≪통일아리랑≫편집위원회 68호

북-미 축구경기때 이북응원 78.7%

대구경북지역 02학번 대학생 4백31명 의식조사
빨리 또는 단계적으로 통일 원한다 70.6%, 2체제 1국가 통일방안지지 54.2%
공기업 민영화 반대 60.6%



올해 부시 미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악의 축≫ 발언과 동계 올림픽 ≪김동성 선수≫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 사이에서 미국에 대한 감정이 많이 격해진 것이 사실이다. 인터넷 상에서는 ≪fucking USA≫라는 노래가 유행하고 대한민국네티즌연합회에서는 반미집회를 열기도 했다.

대구경북지역 새내기들 역시 응답자 가운데 과반수가 넘는 60.1%가 ≪미국은 한국의 경제.정치.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다≫고 답했다. 실제 과거 우리 국민들의 ≪미국이 우리의 우방≫이라는 인식에서 많이 달라진 것. 하지만 27.0%가 ≪미국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의 도움 없이는 우리나라의 발전도 없다≫고 답해 미국과 우리나라의 사이에 빠른 시간내에 해결할 수 없는 현실적인 장애가 있음을 나타냈다.

미국에 대한 인식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제시한 ≪북한에 대한 악의 축 발언해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6.15 공동선언 이행으로 남북관계가 호전되는 상태를 방해하는 발언 (44.0%)≫, ≪테러전쟁 이후 군수산업 중심의 자국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발언(30.5%)≫이라고 답해 예전 반공의식에 물든 시대처럼 북한을 적대적으로 생각하기보다 미국의 의도를 더욱 잘 꼽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주한미군의 주둔 문제에 대해 응답자 가운데 각각 45.6%, 41.3%의 새내기들은 ≪주한미군은 필요하지만 소파 협정 등 불평등한 협정은 개정되어야 한다≫, ≪당장은 아니어도 단계적으로 철수되어야 한다≫고 답해 우리나라와 미국간의 불평등한 협정에 대한 문제의식과 우리나라 통일의 분위기에서 주한미군은 단계적으로 철수 되어어야 한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전반적인 인식속에서 만약 월드컵에서 북한과 미국이 경기를 한다면 78.7%가 북한을 응원을 하겠다고 응답. 남과 북은 한민족이라는 생각과 날로 확산되는 반미의식을 명확하게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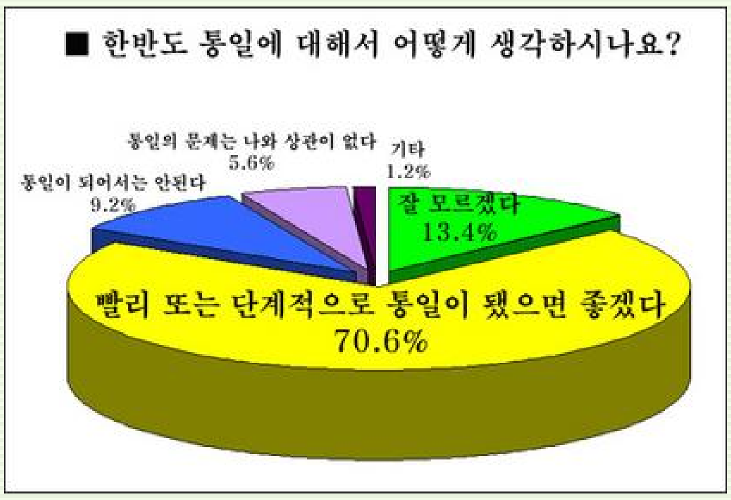
6.15 공동선언이 발표되고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얘기하듯이 새내기들 또한 남과 북의 통일의 문제에 대해서는 70.6%가 ≪남과 북이 빨리 또는 단계적으로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남의 과학기술과 북의 자원이 결합되면 더욱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기 때문≫, ≪남과 북은 원래부터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이 되어야 한다≫로 꼽았다.

반면 ≪남은 자본주의이고 북은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통일이 되면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남한 경제도 좋지 않기 때문에 통일이 되면 경제가 더욱 나빠질 것≫ 등의 이유로 응답자 가운데 9.2%는 ≪남과 북이 통일이 되면 안 된다≫고 답했다.

이는 비록 남과 북이 체제는 다르지만 한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의 확산과 함께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과 북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 결합된다면 더욱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 예상 속에서 통일을 바라는 이들이 더 많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결과다.

한편 2000년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 통일을 얘기한 6.15 남북 공동선언에 대해서는 64.7%가 ≪6.15 공동선언을 안다≫, 남북 공동선언에 대해서는 ≪이산가족 만남과 교류에 성과점이 있다 (57.2%)≫고 답했다.

또한 남과 북의 통일 방법에 대해서는 54.2%가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의 국가를 지향하는 통일방안≫ 이라고 답했으며 북과의 교류에 대해서는 (복수응답 가능) 문화교류(59.6%), 역사문화유적 답사(34.8%), 인터넷 등 IT산업(24.1%), 학술교류(17.7%), 체육교류(15.4%) 순으로 답했다.



몇 년전부터 논란이 돼오던 공기업 민영화가 올해 들어서 본격적으로 운곽을 드러냈다. 철도산업에 이어 발전소 매각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철도노조 파업과 발전노조 파업이 잇달았다. 일단 노동자들의 파업은 철회됐지만 기간산업들이 민영화되고 해외매각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이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가운데 37.8%, 24.9%가 각각 ≪공기업 민영화에는 반대하지만 국민들의 생활에 지장이 있으므로 파업을 오래 하는 것을 반대≫, ≪공기업이 민영화된다면 해외자본이 기업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민영화 반대 투쟁에 찬성≫이라고 밝혀 일단 응답자의 대부분이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공기업이 민영화된다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민영화가 된다면 철도나 전기세 등이 오를 것(39.2%)≫, ≪공기업에 해외시장이 들어와 철도, 전력에 등에 대한 경제적인 압박이 있을 것(21.5%)≫ 으로 대답해 이들 역시 공기업 민영화가 이후에 국민들에게 피해를 가져다 줄 것임을 예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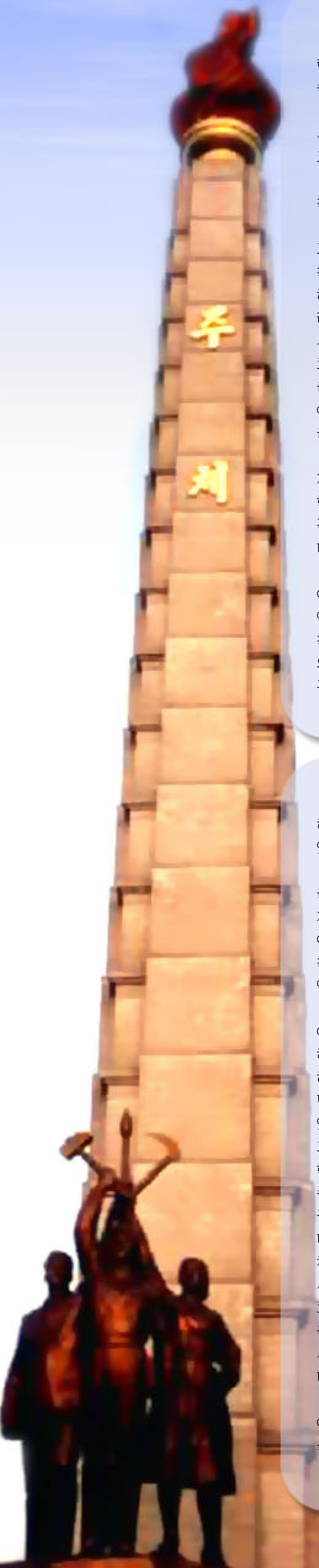
전대기련 대경지부
2002/04/08 유뉴스

2 노작
• 주체철학의 이해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4 세기와더불어
• 5장 5절 새 무장력의 탄생 (3)
6 칭송
• 제일 큰 사랑
• 오늘도 빛나는 민족의 태양
• 혁명가의 참모습 차넘치는 풍모
7 구국의 소리
• 육군, 전력증강기본방향 제시
• 구국의 소리 뉴스 – 주체91, 4월 7일
• 반전반핵투쟁을 힘차게 벌여나가자
9 조선중앙방송
• 주체 91, 4월 7일 보도
•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인덕정치를 철저히 구현하자
11 평양방송
• 인민대중 운명개척의 과학적인 길 명시
15 운동강좌
• 부시행정부 곤경 빠뜨리는 한민족 반제자주역량(3)
12 아리랑뉴스
• 미 한인단체 태양절 행사 개최
• 남북 이산가족 상봉 일정 나왔다
• 김연자씨, 하나된 조국서 노래하고싶다
• 가수 김연자 북에서 인기
• 차기 전투기 소동
• 반환예정 미군기지 39% 환경오염 의심
• 파업복귀 노동자 왜 자극하나
• 미국의 노무현 워치 시작되나
• 민노당의 이념논쟁 제안
• 윤민석씨, 특정 정치인 겨냥 노래 발표

16 조국통일3대헌장
• 통일운동의 대하 (3)

주체철학의 이해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노작 - 당 이론선전일군들과 한 담화 / 주체63(1974)년 4월 2일



최근에 한 사회과학자가 주체철학과 관련하여 자기의 의견을 적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편지내용을 보아도 아직 우리 학계에서 주체철학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체철학은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새로운 철학입니다.

주체철학은 사람을 중심에 놓고 전개되고 체계화된 사람위주의 철학입니다. 주체철학이 사람위주의 철학이라는 것은 단순히 인간문제를 연구하고 해명하는 철학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체철학이 사람위주의 철학이라는 것은 사람을 위주로 하여 철학의 근본문제를 제기하고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세계에 대한 견해, 세계에 대한 관점과 입장을 밝힌 철학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편지를 보내온 사회과학자의 견해를 보면 주체철학을 마치 인간철학과 같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다른 일부 사회과학자들속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철학은 발생한지도 오래고 또 여러 가지 류파가 있지만 그것들은 다 순수 인간문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간철학은 세계관을 주는 과학으로서의 철학의 본래의 사명을 부인하고 주로 인간이란 무엇이며 인생이란 어떤것인가 하는 문제를 논하는 하나의 인생철학입니다.

주체철학은 이와는 다릅니다. 주체철학은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문제를 철학의 근본문제로 제기하고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를 밝혔습니다. 주체철학의 근본문제는 순수 인간문제가 아니라 세계와 사람의 관계문제이며 주체의 철학적 원리는 단순히 인생관이 아니라 세계관을 밝힌 원리입니다. 주체철학은 사람중심의 세계관, 주체의 세계관을 밝힌 철학입니다.

주체철학은 인간에 대한 견해도 새롭게 밝혔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인간문제는 오래전부터 철학의 연구대상으로서 수많이 논의되어왔으나 완성된 철학적 해명이 주어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맑스주의고전가들은 인간문제에 대한 유물변증법적 견해를 확립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철학적 해명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본질을 사회관계의 총체로 규정하고 인간의 활동에서 물질적 생산과 사회경제관계에 결정적 의의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들은 인간문제에 대한 유물변증법적 견해를 세웠지만 자연과 사회의 지배자, 개조자로서의 사람의 본질적 특성을 전면적으로 밝히지 못하였습니다.

주체철학은 처음으로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이 사회적 존재인 사람의 본질적 특성을 이룬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인간에 대한 완벽한 해명을 주었으며 자연과 사회를 지배하고 개조하는 주인으로서의 사람의 지위와 역할에 대하여 올바른 철학적 해명을 주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견해에서 주체철학과 인간철학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주체철학이 인간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사회적 존재로 보는 것과는 달리 인간철학의 제창자들은 인간의 사회적 성격을 부정하고 사람을 본능에 의하여 지배되는 존재로, 세계와 동떨어진 고립되고 무능력한 존재로 봅니다. 세계에 대한 과학적 이해와 혁명적 변혁을 부정하는 부르죠아인간철학은 비애와 염세, 극단한 개인주의를 고취합니다.

우리는 부르죠아인간철학의 반동적 본질을 똑똑히 알아야 하며 인간문제를 새롭게 제기하고 해명한 주체철학의 독창성을 올바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주체철학은 사람을 위주로 하여 세계에 대한 견해를 세우고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에 대하는 관점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우리 시대의 혁명적세계관으로서의 주체철학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주체철학은 사람을 위주로 하여 세계에 대한 견해, 세계에 대한 관점과 입장을 새롭게 밝힘으로써 노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에게 세계를 개조하며 자기의 운명을 개척해나갈수 있게 하는 위력한 무기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사람들은 세계가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졌다거나 물질세계의 모든 변화발전이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것이 마치 선행철학과 구별되는 주체철학의 새로운 견해인듯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의식이나 관념이 아니라 물질로 이루어져있고 그 어떤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자체의 법칙에 따라 운동하고 변화발전한다는 것은 이미 유물변증법에 의하여 밝혀졌습니다. 세계가 본질에 있어서 물질이고 물질로 통일되어 있으며 그자체의 법칙에 따라 운동하고 변화발전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주체철학은 새로운 문제, 세계의 주인이 누구이며 세계를 개조하고 변혁하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해명하였습니다. 주체철학은 자연과 사회는 사람이 지배하며 사람에 의하여 개조된다는 세계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밝힘으로써 인민대중이 자기운명의 주인, 역사의 주인으로 등장한 우리 시대의 철학적과제를 빛나게 해결하였습니다.

주체철학은 이처럼 사람이 세계의 주인이며 세계는 사람에 의하여 지배된다는 것을 밝힌것이지 결코 물질세계자체가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주체철학이 밝힌 것은 사람이 세계의 개조자이며 사람에 의하여 세계가 개조된다는 것이지 세계의 모든 변화가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세계가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졌다거나 세계의 모든 변화발전이 사람에 의하여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주체철학을 잘 모르는데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주체철학이 밝힌 세계에 대한 견해를 해석하는데서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그릇되게 해석하여서는 안됩니다.

주체철학을 옳게 이해하는데서 또한 자주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체철학은 처음으로 사람은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회적 존재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본성,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해명하는데서 역사적 전환으로 됩니다.

그런데 지금 주체철학이 밝힌 자주성문제를 이해하는데서 그릇된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사회과학자가 보내온 편지를 보아도 그렇고 일부 사람들은 사람의 자주성을 생명물질일반이 가지고 있는 생존하려는 자연적 속성이 발전되고 완성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주성은 사회적 존재로서 사람이 가진 속성이며 따라서 그것을 생명물질의 자연적, 생물학적 속성의 발전완성으로 보아서는 안됩니다.

사람의 자주성을 생명물질일반의 자연적 속성이 발전완성된 것이라고 보는 견해는 본질에 있어서 진화론적 고찰방법입니다.

물론 우리는 진화론 그 자체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장구한 진화발전의 산물이라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과학에 의하여 확증된 사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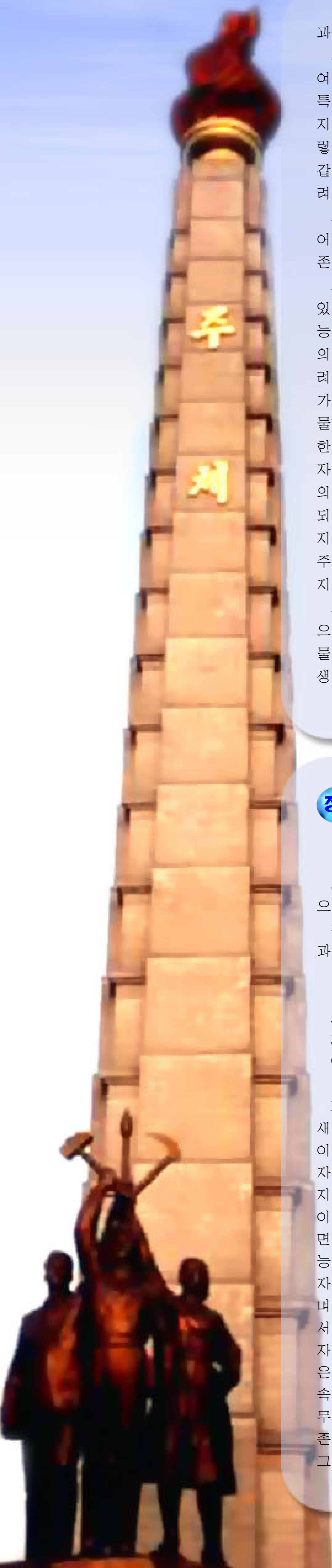
그러나 사람은 진화의 산물이지만 사람의 자주성은 진화의 산물이 아닙니다.

자주성은 사회적산물입니다. 자주성은 자연이 아니라 사회가 인간에게 부여하는 속성이며 자연계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사회역사적으로 형성되고 발전하여온 속성입니다. 자연이 인간에게 자연적, 생물학적 속성을 부여한다면 사회는 인간에게 사회적 속성을 부여합니다. 사람의 자주성은 사회생활, 사회적 실천의 요구이며 반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주성과 관련하여 어떻게 사람만이 자주성을 가질 수 있는가를 진화발전의 견지에서 생명물질일반과 대비적으로 고찰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자주성은 사람이 오랜 진화과정에서 형성되고 발전된 특유한 육체적 기관

주체철학이 사람위주의 철학이라는 것은 사람을 위주로 하여 철학의 근본문제를 제기하고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세계에 대한 견해, 세계에 대한 관점과 입장을 밝힌 철학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 떼여놓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발전된 유기체가 있음으로 하여 사람은 다른 생명물질들이 가질 수 없는 특유한 기능인 사유기능과 노동기능을 가지며 따라서 자주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사람의 자주성도 그 유기체와 같이 진화발전에 의하여 생겨난 것처럼 보려고 하여서는 안됩니다.

사람의 속성인 자주성은 사회이전에는 그 어떤 맹아적 형태로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존재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의 자주성은 생명물질일반이 가지고 있는 단순히 육체적 존재를 유지하려는 본능적 속성과는 질적으로 구별됩니다. 사람의 자주성은 사회적 존재로서 살며 발전하려는 속성입니다. 사회적 존재로서 사람이 가지는 자주성을 생존하려는 본능적인 생물학적속성으로부터 설명하려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회적 존재와 자연적 존재, 사회적 속성과 생물학적속성의 근본적 차이를 해소시키는 것으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회적 존재로서 사람이 가지는 자주성은 어디까지나 사회역사적 범주이며 따라서 자주성문제는 사회역사적 견지에서 보고 이해하여야 합니다.

사람의 자주성을 생명물질의 자연적속성으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하여 사람자체를 물질적 존재로 보는 것을 부인하는 것으로 생각하여서는 안됩니다.

사람은 어디가지나 물질적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단순한 물질적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객관세계에 종속되고 순응하는 다른 생명물질들과는 달리 세계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지배하고 개조변혁해나가는 존재입니다. 사람의 속성인 자주성을 자연적 속성으로 본다면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존재인 사람과 생명물질일반의 근본적인 계선을 모호하게 만들며 세계의 지배자, 개조자로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생명물질일반의 수준으로 낮추는 것으로 될 것입니다.

자주성은 사회적 존재인 사람이 주요한 속성을 이루지만 그것이 사람이 가지는 사회적 속성의 전부가 아닙니다. 자주성과 함께 창조성, 의식성도 사람의 사회적 속성을 이루지만 그것이 사람이 가지는 사회적 속성의 전부가 아닙니다. 자주성과 함께 창조성, 의식성도 사람은 사회적 속성을 이룹니다. 물론 자주성과 창조성과 의식성은 다같이 사람의 사회적 속성을 이루면서도 서로 다른 측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주성은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려는 사람의 속성이며 창조성은 목적 의식적으로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사람의 속성이며 의식성은 세계와 자기자신을 파악하고 개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규제하는 사람의 속성입니다. 자주성과 창조성과 의식성은 서로 구별되면서도 호상 밀접히 통일되어 있습니다. 자주성을 떠나서 창조성을 충분히 발양할 수 없으며 창조성을 떠나서 자주성을 옳게 실현해나갈수 없습니다. 자주성과 창조성은 의식성을 전제로 하며 또 그에 의하여 담보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사회적 속성을 이해하는데서 자주성과 창조성과 의식성을 통일적인 연관속에서 옳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체철학은 인간의 본성과 세계의 지배자, 개조자로서의 그 지위와 역할을 새롭게 밝힘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최상의 경지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철학사상도 이룩할 수 없었던 주체철학의 커다란 공적입니다.

오늘 주체철학은 세계인민들속에서 날이 갈수록 더욱더 커다란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학이론일군들이 주체철학을 깊이 연구하여 정확히 해설선전함으로써 주체사상의 위대성을 더욱 빛내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자주성을 비롯하여 주체사상을 이해하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앞으로 전개하여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말을 아직은 전달하지 말고 과학이론일군들속에서 주체사상에 대한 이해를 바로 가질 수 있게 학습과 연구를 심화시키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끝)

정치사전

자 주 성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회적인간의 속성.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자주성은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회적인간의 속성입니다.》 (《주체사상에 대하여》, 10페지)

자주성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의하여 새롭게 밝혀 진 사람의 본질적속성이 하나이다. 사람은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려는 요구, 자주적인 요구를 가지고 있다. 사람의 자주성은 생명물질 일반이 가지고 잇는 단순히 외부환경에 순응하면서 자기의 육체적존재를 유지하려는 본능적속성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사람의 자주성은 세계와 자기운명을 지배하면서 살며 발전하려는 속성이다. 세계의 주인으로서 자유롭게 살려는 사람의 이러한 성질을 자주성이라고 한다. 자주성으로 하여 사람은 자연의 구속을 극복하고 사회의 온갖 예속을 반대하며 모든것을 자신을 위하여 복무하도록 만들어 나간다. 자주성은 사회적존재로서 사람이 가지는 속성이며 따라서 그것은 생명물질의 자연적, 생물학적 속성이 발전완성된것이다. 물론 사람도 장구한 진화발전의 산물이다. 그러나 자주성은 진화의 산물이 아니라 사회적산물이다. 자주성은 자연이 아니라 사회가 인간에게 부여하는 속성이며 자연계로부터 물려 받은것이 아니라 사회력사적으로 형성되고 발전하여 온 속성이다. 물론 사람의 자주성은 사람이 오랜 진화과정에서 형성되고 발전한 특유한 육체기관과 떼여 놓고 생각할수 없다. 사람에게 발전된 유기체가 있음으로 하여 사람은 다른 생명물질들이 가질수 없는 특유한 기능인 사유기능과 로동기능을 가지며 따라서 자주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자주성도 그 유기체와 같이 진화발전에 의하여 생겨 났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은 결코 아니다. 사람의 속성인 자주성은 사회이전에는 그 어떤 맹아적형태로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존재할수도 없었다. 이런 의미에서 자주성은 사회생활, 사회실천의 요구이며 반영이라고 할수 있다. 자주성은 사회적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을 이룬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이 생명이라고 할 때 그것은 사회정치적생명을 의미한다. 사람은 육체적생명과 함께 사회정치적생명을 가진다. 육체적생명이 생명유기체로서의 사람의 생명이라면 사회정치적생명은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의 생명이다. 사회적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 사회정치적생명은 육체적생명에 비할바없이 귀중하다. 자주성은 주로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사람의 지위로 표현된다. 자주성은 세계의 지배자로서의 사람의 속성으로서 온갖 구속과 예속을 허용하지 않고 세계의 모든것을 자신을 위하여 복무하도록 만들어 나가는 자주적활동을 통하여 발현된다. 자주성은 사회적존재인 사람의 중요한 속성을 이루지만 그것이 사람들이 가지는 속성의 전부는 아니다. 자주성과 함께 창조성, 의식성도 사람의 사회적속성을 이룬다.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은 밀접히 련관되여 사회적존재인 사람의 본질적특성을 이루며 인간활동과정에서 통일적으로 발현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밝히신 자주성에 관한 사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키심으로써 사람의 본질적속성으로서의 자주성에 관한 완성된 철학적리해를 확립하시였다. 자주성에 대한 철학적해명, 이것은 력사상 처음으로 세계의 지배자로서의 사람의 본질적속성을 밝히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상의 경지에 이르게 하였으며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주체적으로 풀어 나갈수 있는 기본열쇠를 마련한 주체철학의 커다란 공적이다.

2권 제5장

무장한 인민

1. 수난당한 대지
2. 9.18사변
3. 무장에는 무장으로
4. 혈전의 준비
5. 새 무장력의 탄생

5. 새 무장력의 탄생 (3)

우리는 우사령과의 담판에 성공함으로써 유격대의 존재와 활동을 합법화하고 우리와 련합하여 일제와의 항전을 벌일 수 있는 동맹군을 가지게 되었다. 담판의 성공은 또한 우리에게 애국애족의 대의를 내세운다면 사상과 리념이 서로 다른 타국의 민족주의자들과도 통일전선을 뭇고 공동투쟁을 벌일 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게 하였다.

그 신심은 그 이후 반세기 이상에 걸치는 나의 정치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였다고 생각된다.

나는 사상과 리념이 다른 민족주의자들이나 복잡한 생활경력을 가진 자산계급출신의 각계각층 인사들을 포섭하는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주저하거나 편견을 가지고 행동하는 일군들을 만나게 되면 우사령과 담판하던 경험을 상기하면서 그들의 도량을 넓혀주군 하였다.

소사하에 돌아온 나는 왕청지구에서 구국군공작에 고심하고 있는 리광에게 우사령과의 담판내용과 조선인 별동대가 조직되게 된 경위를 상세히 통보해주고 안도의 경험을 참작하여 왕청에서도 지체없이 별동대를 하나 조직할 데 대한 과업을 주었다.

그때까지도 리광은 지하활동을 하고 있었다. 나는 한개 중대의 인원을 리광에게 보내어 거기에서도 별동대를 조직해가지고 지하활동으로부터 합법적인 활동으로 넘어가게 하였다.

별동대라는 것은 조선사람으로 조직된 특별부대라는 말이다. 조선사람으로 조직된 부대가 구국군들과의 관계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한 것은 우리와 리광이네밖에 없었다.

그때 우리가 별동대라는 이름을 가진 것은 우리 유격대의 합법적 활동을 보장하며 구국군과의 련계를 강화하고 그들과의 반일련합전선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전술적 조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별동대는 내온 다음 그것을 확대하고 재편성하여 빠른 시일안에 반일인민유격대를 내오기 위한 준비사업을 활기있게 다그치였다.

첫 유격대오가 들었던 기발

대오를 편성하는 사업은 여러 가지 론쟁을 동반하였다. 그때 어떤 동무들은 유격대대렬내에 로동자성분이 적은 것을 가지고 몹시 우려하였다. 100여명이나 되는 입대대상자들을 조사해보니 대부분이 학생출신과 농민출신들이였다. 이 실태에 놀란 몇몇 동무들이 로동자성분이 적은 것은 혁명군대를 조직하는데서 맑스-레닌주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되지 않는가. 그것은 또한 장차 혁명군의 변질을 가져올 수 있는 요소로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견해를 표시하였다. 나는 그런 견해에 대해 로동계급이 혁명군의 주구성성분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은 맑스-레닌주의군사학의 일반적 원리이다. 그러나 이 원리를 기계적으로 적용할 필요는 없다. 우리 나라에서는 농민이 주민의 압도적 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로동계급은 농민에 비해 수적으로 적은 상태에 있다. 그렇다고 로동계급의 수자가 많아질때까지 유격대창건을 뒤로 미루고 기다릴 수는 없다. 우리 나라에서는 농민이나 학생출신도 다 로동계급 못지 않게 혁명의식이 높고 민족성이 강하다. 출신이 달라도 로동계급의 사상을 가지고 싸우면 된다. 농민이나 인텔리 출신이 많은 것이 혁명군이 변질될 요소로는 되지 않는다고 진지하게 깨우쳐주었다.

우리는 지휘체계를 세우는데서고 기존공식을 절대시하지 않고 유격전쟁의 특성와 요구에 맞게 구령을 치는 사람보다 구령을 집행하는 싸움꾼을 많이 내는 방향으로 대오를 짜고 편제를 결정하였다. 말하자면 지휘체계를 고도로 단순화하였다. 그러므로 부대에 후방부서나 그것을 주관하는 지휘관도 따로 두지 않았다. 모두가 밥도 짓고 빨래도 하고 싸움도 하며 때에 따라서는 정치공작도 할 수 있게끔 준비시켰다.

그 때 우리에게 그라우제위쯔의 ≪전쟁론≫과 같은 책이라고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은 계시를 받았겠는가. 당시의 우리 수준이란 그저 부대편성에서의 3.3제는 나뽈레옹이 창시한 것이라는 정도의 상식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라우제위쯔에 대해서는 이름이나 알 정도였다.

나는 2차세계대전때에야 그라우제위쯔의 ≪전쟁론≫을 처음으로 입수하였다. 지휘체계를 단순화하여 싸움군을 많이 대도록 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나를 쉽게 공감시킬 수 있었다.

반일인민유격대는 중대를 기본전투단위로 하여 조직되었다. 나는 대장 겸 정치위원으로 선거되었다. 유격대의 군복은 가둑나무물을 들인 록색천으로 지었다. 왼쪽가슴에는 다섯모가 난 붉은 천을 오려붙이고 거기에 중대번호를 써넣었다. 군모에는 붉은 별을 달기로 하였으며 다리에는 흰 행전을 치기로 하였다. 유격대 창건의 마지막 세부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복장제도를 하나하나 마무리지어나가기란 참으로 가슴흐뭇한 일이었다.

우리가 진지하게 토의하고 결정한 복장제도에 따라 부녀회원들이 떨쳐나서 군복을 짓기 시작하였다. 그때 어머니는 시름시름 앓으면서도 부녀회원들과 함께 온갖 정성을 기울려 군복을 마르기도 하고 재봉침을 돌리기도 하였다.

우리는 1932년 4월 하순 안도에서 반일인민유격대를 조직하기 위한 최종회의를 소집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입대지망자들에 대한 마지막 심사와 함께 유격대결성식 날짜와 장소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였는데 당면한 활동지역을 확정하고 유격대의 활동과 관련된 전반적 대책을 수립하였다.

이 회의 후 입대지망자들은 3도백하의 입구인 류가분방에 모였다가 소사하에 집결하였다. 입대지망자는 100여명이었는데 그들 중 지금까지 이름이 기억되는 것은 차광수, 박훈, 김일룡, 조덕화, 곰보, 조명화, 리명수, 김철, 김봉구, 리영배, 리봉구, 방인현, 김종환, 리학용, 김동진, 박명손, 안태범, 한창훈밖에 없다.

반일인민유격대 창설

➡

반일인민유격대 대오를 돌아보시는 강반석여사

1932년 4월 25일 아침.

우리는 토기점골 등판에서 반일인민유격대의 창건식을 가지였다.

이깔나무숲으로 둘러싸인 등판의 공지에 새 군복을 떨쳐입고 무기를 휴대한 대원들이 구분대단위로 정렬하고 그 공지의 한쪽변두리에 소사하와 홍륭촌 일대의 인민들이 모여서서 술렁대고 있었다.

대원들의 생신하고 름름한 모습을 정겹게 바라보는 내 눈앞에는 가지가지의 회억들이 구름처럼 떠올랐다. 이 무장대오의 결성을 위하여 우리의 동지들이 길은 얼마나 걸었고 모임은 얼마나 가졌고 연설은 얼마나 하였고 준령은 얼마나 넘었으며 그 과정에 가슴아픈 희생은 얼마나 당하였던가. 반일인민유격대는 수많은 동지들의 눈물겨운 로고와 피어린 투쟁과 희생의 대가로 이루어진 우리 혁명의 고귀한 산아였다.

나는 이날을 보지 못하고 희생된 동지들과 고인들을 토기점골등판에 불러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며 가슴에 차넘치는 격정을 터뜨려 연설을 시작하였다.

내가 반일인민유격대의 창건을 선포하자 대원들은 목청껏 만세를 부르고 인민들은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었다.

만국로동계급의 전투적 명절은 5월 1일 우리 반일인민유격대는 붉은기를 앞세우고 안도현성에 입성하여 나팔을 불고 북을 두드리면서 보무당당히 열병행진을 하였다.

반일인민유격대의 지휘관으로 임명된 김일룡이 이날의 행진에서 노래선창을 담당하였다. 그날은 시민들 뿐만 아니라 반일부대 장교들과 병사들까지 거리에 떨쳐나와 엄지손가락을 흔들며 환영의 인사를 보내고 축하의 박수를 쳐주었다.

무력시위를 끝낸 대오가 토기점골로 돌아왔을 때 차광수와 김일룡이 우리 집으로 달려가 몸져누워있는 어머니를 데려왔다.

병고에 시달린 얼굴, 미간에 생긴 주름살, 머리의 흰오리, 그러나 어머니의 눈은 고요히 웃고 있었다. 어머니는 리영배의 곁에 다가와 총이며 탄띠며 오각별을 오래오래 만져보았다. 그 다음 김철, 조덕화, 김일룡, 방인현, 차광수의 앞을 거닐면서 이 총도 쓸어보고 저 총도 쓸어보고 이 어깨도 만져보고 저 어깨도 만져보고.

미구에 어머니의 눈이 서서히 젖어들었다.

≪정말 장하구나. 우리 군대가 생겼으니 이제는 됐다. 왜놈들을 치고 나라를 꼭 찾아야 한다!≫

음성도 퍼그나 젖어있었다. 어머니는 분명 우리에게 바친 자신의 지성은 까마득하게 잊고 조국광복을 기원하며 먼저 떠나간 아버지와 애국지사들의 로고에 대하여 생각하였을 것이다.

그후 연길, 훈춘, 화룡을 비롯한 동만의 다른 지방들에서도 유격대들이 련이어 조직되었다. 김책, 최용건, 리홍광, 리동광 등 조선의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북만과 남만에서도 유격부대들이 련이어 태어나 적들에게 포문을 열었다.

1932년 봄은 항일대전의 총성 속에서 무르익어갔다.

(끝)

항일혁명투쟁시기 조선인민혁명군

조국해방전쟁시기 ≪진격의 길에≫

≪장군님의 믿음에 충성으로 보답하리≫ (금강산발전소 건설현장)

≪인민군대의 총창우에 사회주의운명과 부강한 조국이 있다!≫

일화

제일 큰 사랑

1969년 가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영화 ≪사회주의 조국을 찾은 영수와 영옥이≫를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작품으로 만들어 평양에서 열리게 되는 반미세계기자대회에 내놓을데 대한 **김일성**주석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작품의 작가와 연출가는 영화의 마지막 수정작업을 했는데 연출가는 일부 장면들을 수정대본대로가 아니라 제 마음대로 만들어냄으로써 영화제작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엄중한 결함을 발로시켰습니다.

어느날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연출가와 작가를 부르시어 연출가를 엄격히 비판하셨습니다.

자기 과오의 엄중성을 통절히 느낀 연출가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제가 그만…≫하고는 말끝을 맺지 못했습니다.

이런 그를 옆에서 보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던 작가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워낙 제가 영화대본을 제대로 쓰지 못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연출가는 그래도 영화를 만드느라고 뛰였지만 대본이 신통치 못하다보니 애를 먹었을 것입니다. 반미세계기자대회에 내놓기 어렵게 된데는…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라고 하다가 그만 중둥무이하고 말았습니다.

장군님께서 놀라움과 의혹이 섞인 안색을 지으시고 작가를 유심히 바라보시는 것이였습니다.

그분께서는 아픈 마음을 진정하시려는듯 아무 말씀도 없이 깊은 생각에 오랫동안 잠겨계시더니 ≪됐소. 오늘은 더 말하지 맙시다.≫하시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작가는 어째서 그분께서 자기의 말을 들으시고 그처럼 괴로워하셨을까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정신없이 사무실에 돌아온 그는 그날도 다음날도 자신을 검토했습니다. 그는 그분앞에 서있었을 때의 자기 사상상태를 깊이 검토해보니 번개처럼 머리를 때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장군님께서 연출가의 과오가 엄중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를 극진히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엄하게 비판하신 것인데 연출가가 혼자 비판받게 된 것을 미안하게 여기면서 두둔했으니 이것이야말로 연출가를 그분의 자애로운 사랑의 품에서 떼어내려고 한 망령된 행동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런 자책의 실마리를 찾은 작가는 그후 장군님을 만나뵙고 잘못을 깨달았다고 아뢰고 자기를 비판해주실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는 작가를 연민의 정이 어린 눈길로 바라보시던 장군님께서는 아직 깨달은 것 같지 않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령님의 교시가 관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걸린 고리를 혁명적으로 풀 생각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동무는 당의 의도를 어기고 영화완성에 지장을 준 연출가를 비판할 대신 두둔하고 있으니 말이 됩니까. 수령님의 교시 관철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그런 서푼짜리 인정은 소용없습니다. 비판에 대한 관점이 바로 서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서 더 검토하시오.≫

장군님의 말씀은 비판은 사람들을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의 한길에서 정치적 생명을 빛내이며 보람찬 삶을 꽃피우게 하는 참된 사랑이라는 것을 깨우쳐주시는 가르치심이였습니다.

혁명하는 사람들이 동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동지의 정치적 생명에 손상이 없도록 극진히 보살피고 엄격히 타일러주어야 한다는 요구였습니다. ≪귀한 자식 매로 기른다≫는 말이 있듯이 동지들사이의 사랑은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였습니다. 동지의 결함을 보고도 타일러주지 않거나 가까운 동무라고 하여 결함을 싸고든다면 그 결함을 조장시켜 결국 동지를 헤어날 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판이야말로 참된 사랑이며 사랑중에서도 가장 큰 사랑입니다. 이것이 **김정일**장군님의 사랑의 철학입니다.

작가는 장군님의 위대한 사랑의 철학을 깨달은 기쁨에 가슴이 마냥 높뛰였습니다.

참으로 작가의 자기 검토의 나날은 참된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비판이 얼마나 소중한 사랑중의 사랑인가를 가슴후련이 깨닫게 한 귀중한 나날이였습니다.

송시

오늘도 빛나는 민족의 태양

언제나 밝게 웃으시며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빛나는 태양의 그 모습
오늘도 마음속에 계십니다

외세에 짓밟혀
한가닥의 빛조차 그리운
어두운 남녘의 가슴가슴에
환하신 미소를 보내주십니다

멀고도 고난에 찬 해방의 길에
어렵고 힘겨워 주춤할때면
위대한 태양의 그 이름
신심과 용맹을 안겨줍니다

자주, 통일, 애국의 길에서
눈앞에 깃발로 나부끼며
6.15선언 관철에 불러주시며
손잡아 이끄시는 우리 어버이

필승으로 새기는 주체의 뜻
자자구구 심장에 새기고 새겨
장군님따라 그 뜻으로 꽃피울
통일삼천리에 천만년 빛나옵니다

아- 오늘도 빛나는 민족의 태양
영원한 어버이 **김일성**주석님

흠모

혁명가의 참모습 차념치는 풍모

조선노동당 창건 45돌에 참가한 외국대표

김정일비서에 대하여 전해들은 가지가지의 이야기와 그이의 고전적 문헌 연구를 통하여 체득한 비서의 사상이론의 위대성과 조선의 현실에서 본 그 영도의 현명성 그리고 철저한 인민복무정신 등은 친애하는 **김정일**비서를 만나뵈온 첫 순간에 사실이고 진리이며 그이의 인민적 품성은 더 크고 깊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잊지 못할 1990년 10월 9일, 나는 조선노동당 창건 45돌 경축행사장에서 **김일성**주석과 함께 **김정일**비서를 몸가까이에 모시는 더없는 영광을 받아안게 되었다.

이날 행사장인 2.8문화회관에서 조선노동당 창건 45돌을 열렬히 축하하기 위하여 세계 5대륙의 126개 나라에서 온 국가수반, 정부수반들과 당대표단,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 사회단체대표단, 친선 및 연대성단체대표단들을 비롯하여 276개 대표단과 대표들 그리고 저명한 사회활동가들이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비서를 만나뵈옵게 될 순간을 흥분에 휩싸여 기다리고 있었다.

만면에 환한 미소를 띄우시고 수많은 외국대표들의 열렬한 환호에 답례하시며 걸음을 옮기시는 **김일성**주석, 그 뒤에서 겸손하게 다가오시는 **김정일**비서, 참으로 소박하기 그지없는 그이의 모습에는 위대한 수령님을 항상 생각하고 모든 영광을 수령님께 드리시려는 혁명전사의 참모습, 대를 이어 주체위업에 충실하고 그것을 승리에로 이끌어 나가시려는 의지와 영도자의 풍모가 차넘치고 있었다.

김일성주석의 포근한 손을 뜨겁게 잡아 인사를 올린 다음 나는 저도 모르게 **김정일**비서의 오른손을 두손으로 굳게 잡고 그이께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었다.

… 우리는 주체사상을 신념으로 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김일성**주석과 함께 우리는 주체사상을 발전 풍부화시켜 나가시는 **김정일**비서를 존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사람중심의 주체사상을 더욱 깊이 연구해 나갈 것이며 새 사회를 위해 힘써 나갈 것입니다.

김일성주석께서와 **김정일**비서께서 만년장수하시기를 마음속으로부터 축원합니다. …

너무나도 감격하여 어쩔 바를 몰라하던 그 자리에서 이러한 말씀을 어떻게 올렸는지 지금도 믿어지지 않는다.

김정일비서께서는 나의 손을 잡으시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몇 번이고 답례의 말씀을 주시었다.

여담이 되겠지만 그것이 순간인 것처럼 느껴졌으나 후에 알고 보니 5~6분이 지났다 한다. 그러니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비서께서는 우리들 곁에 예상외로 오래 머무르고 계셨고 **김정일**비서를 내가 독차지한 것 같았다.

위대한 인간의 인품이란 상봉한 첫 순간에 안겨오기 마련이다.

불과 몇 분에 지나지 않은 시간이였으나 그이의 인품을 이해하기에는 나에게 있어서 충분한 시간이였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인민을 위한 새형의 영도자이신 **김일성**주석의 영광찬 혁명활동노정과 더불어 성장하시고 주석의 높은 뜻을 빛나게 이어 나가시는 영명한 지도자 **김정일**비서의 풍모는 주석의 풍모 바로 그대로였고 앞으로 더 큰 빛을 뿌릴 향도자의 풍모였기 때문이였다.

그 이후 **김정일**비서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를 생각해주시고 많은 이해와 방조를 해주시었다.

나는 요즘 자주 이렇게 생각한군 한다.

(**김정일**비서께서는 단지 수령의 지위를 이으시었을뿐아니라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정신, 인민을 위해 고생하는 험산준령을 택하시었구나.)라고.

김정일비서의 매력, 그것은 주석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선 세대를 넘어서는 새 지도자라는데 있다. 그러니 그이를 지도자로 모신 조선인민은 신념과 낙관을 가지고 그이를 무한히 신뢰하고 함께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 신념, 낙관은 또한 우리의 것이기도 하다.

우리 역시 인민대중중심의 주체사상을 연구 보급해 나가는 길위에 **김정일**비서와 함께 서있으며 이것은 우리의 더없는 영광으로 된다.

육군, 전력증강기본방향 제시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국군은 4일 오후 계룡대 대강당에서 방위산업체와 *** 관계자, 방위산업관련 연구원, 전력증강분야 군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군의 전력증강방향에 대한 공개설명회를 갖고 ***전력증강기본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육군은 앞으로 ** 디지털 육군건설을 위해 정신적으로 병력을 정예화하고 무기체계를 첨단화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6.15남북공동선언정신에 배치되는 것이고 전력을 증강해 기어코 미국과 함께 북침전쟁을 도발하려는데 깊은 저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군호전분자들이 파국적인 경제위기와 실업난, 도탄에 빠진 민생, 거리를 방황하는 실업자들을 구제하는데는 전혀 관심을 돌리지 않고 무력증강에만 혈안이 되고 있는 목적은 불을 보듯 명백합니다.

군호전분자들에게는 민족의 화해도 한반도의 평화도 안중에 없습니다. 그들은 걸핏하면 평화와 협력에 대해 떠들지만 실제로는 선행자들과 마찬가지로 북침야망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출적인 그 야망을 어떻게하나 실현해보려고 평화와 통일에 대한 겨레의 지향에 무력증강으로 대답해 나서고 있습니다.

군호전광들이 외세와 손잡고 동족을 해치기 위한 무력증강책동과 북침전쟁연습에 날뛲으로써 한반도에서 북침전쟁의 위험은 현실적인 것으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려면 북침을 위한 무력증강과 각종 전쟁연습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군호전분자들이 냉전식사고와 행동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북침전쟁준비에만 혈안되고 있는 여건에서는 절대로 남북관계를 좋게 발전시킬 수 없고 언제 터질지 모를 위험한 정세도 완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군호전분자들이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반대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을 이룩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무력증강과 북침전쟁연습을 당장 중지해야 합니다.

군호전분자들은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우리 민중과 국제사회의 요구를 무시하고 무력을 증강해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핀다면 자기가 지핀 불길에 타죽고야 말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군호전분자들이 미국과 함께 북침을 위한 무력증강에 광분하면 할수록 그것은 그들 자신의 파멸만을 앞당길 뿐입니다.

평화를 사랑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각계 민중은 반북대결전쟁책동에 혈안이 되고 있는 외세의 전쟁머슴꾼, 민족반역의 집단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각계 애국민중은 우선 군호전분자들의 무력증강책동을 저지시키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반전반미투쟁의 파고를 더욱 높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국의 소리 - 화제의 초점
주체91, 4월 7일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 91, 4월 7일

비디오영화 ≪평양음악열풍≫ 제작

최근 ≪한국해맞이비디오≫에서는 비디오영화 ≪평양음악열풍≫을 제작했습니다.

이 영화는 6.15남북공동선언발표후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우리 민중의 뜨거운 흠모자료들과 함께 ≪한별을 지켜가리라≫, ≪조국의 품≫, ≪동지애의 노래≫ 등 20여개의 이북 명곡들과 조국통일3대헌장을 지지하는 노래를 이어 부르는 각계의 모습을 화면으로 묶어 편집한 것입니다.

영화는 민족의 존엄을 높이 떨쳐주시고 온 겨레를 조국통일의 한 길로 현명하게 이끌어주시는 절세의 위인들에 대한 우리 민중의 열렬한 흠모심을 생동하게 펼쳐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서 관람자들의 깊은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비디오영화 ≪평양음악열풍≫은 지금 각계의 커다란 관심속에 널리 파급되고 있습니다.

≪아리랑≫ 종합연습 관람 외국인들 감탄

평양방송에 따르면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의 종합연습과정을 지켜보던 외국인들이 감탄을 표시했습니다.

호주≪아리랑≫관광고찰단 그레거 울트머단장은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정말 감탄을 자아낸다면서 지금까지 집단체조들을 적잖게 보아왔지만 이런 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은 처음 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배경대가 매우 황홀하고 훌륭하다면서 이런 공연을 본 것을 행운으로 간주한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프랑스, 영국, 독일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리랑≫을 보도록 하는데 적극 기여할 결의를 표명했습니다.

러시아 샹발라여행사 사장은 출연자들의 정확한 동작은 자기들을 경탄시켰다면서 이 공연을 보는 사람들은 모두 커다란 감동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리랑≫은 매우 특색있고 독특한 공연으로 될 것이라면서 자기들의 여행사는 ≪아리랑≫공연을 더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에 평양시를 돌아보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면서 도시가 아주 훌륭하게 꾸려졌고 문화유적들을 비롯한 아름다운 풍경이 공연을 보러 오는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안겨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일영도자 혁명활동약사 게제 나이지리아신문 ≪오브저버≫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혁명활동약사를 나이지리아신문 ≪오브저버≫ 2월 25일자가 게재했습니다.

신문은 **김정일**영도자님의 초상사진을 모시고 영도자님께서 조선노동당 제6차 대회를 높은 정치적 열의와 빛나는 노력적 성과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끄신데 대해 소개했습니다.

신문은 **김정일**영도자님의 현명한 영도에 의해 조선노동당 제6차 대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된데 대해서와 대회에서 그분께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임위원회 위원장, 당중앙위원회 비서로, 당중앙 군사위원회 위원으로 높이 추대되신데 대해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또 **김정일**영도자님께서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70돌을 대정치축제로 맞이하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조직영도하신데 대해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폴란드잡지 ≪우바스크≫ 3월호도 **김정일**영도자님의 혁명활동약사를 보도했습니다.

태양절 즈음해 뷸레찐 발행 이집트 조선친선협회

태양절에 즈음해 이집트 조선친선협회에서 3월 24일 ≪조선의 행운≫이라는 제목의 뷸레찐 특간호를 발행했습니다.

뷸레찐은 **김일성**주석님은 20세기의 위인중의 위인이시며 세계정치사에서 가장 성공적인 정치가이시라면서 그분의 업적을 높이 칭송했습니다.

뷸레찐은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주석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체계화하시고 발전풍부화하셨으며 당과 국가의 전반사업을 영도하시며 주석님의 사상과 위업이 훌륭히 계승되어 나가게 하셨다고 지적했습니다.

뷸레찐은 ≪**김정일**, 그분은 **김일성**주석님과 꼭같으신 조선민중의 구세주, 태양≫이시라고 높이 칭송했습니다.

반테러작전 확대 반대 러시아 안전이사회 서기장

이타르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안전이사회 서기장이 3일 기자회견에서 반테러작전을 확대하려는 일부 나라들의 시도를 반대했습니다.

그는 국제공동체의 승인없이 제멋대로 선정한 나라들에로 반테러작전을 확대하려는 모든 시도들을 용납할 수 없다고 언명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원칙적 입장은 테러를 반대하는 투쟁이 철저히 국제법에 기초해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동문제 우려 표시 중국 외교부 대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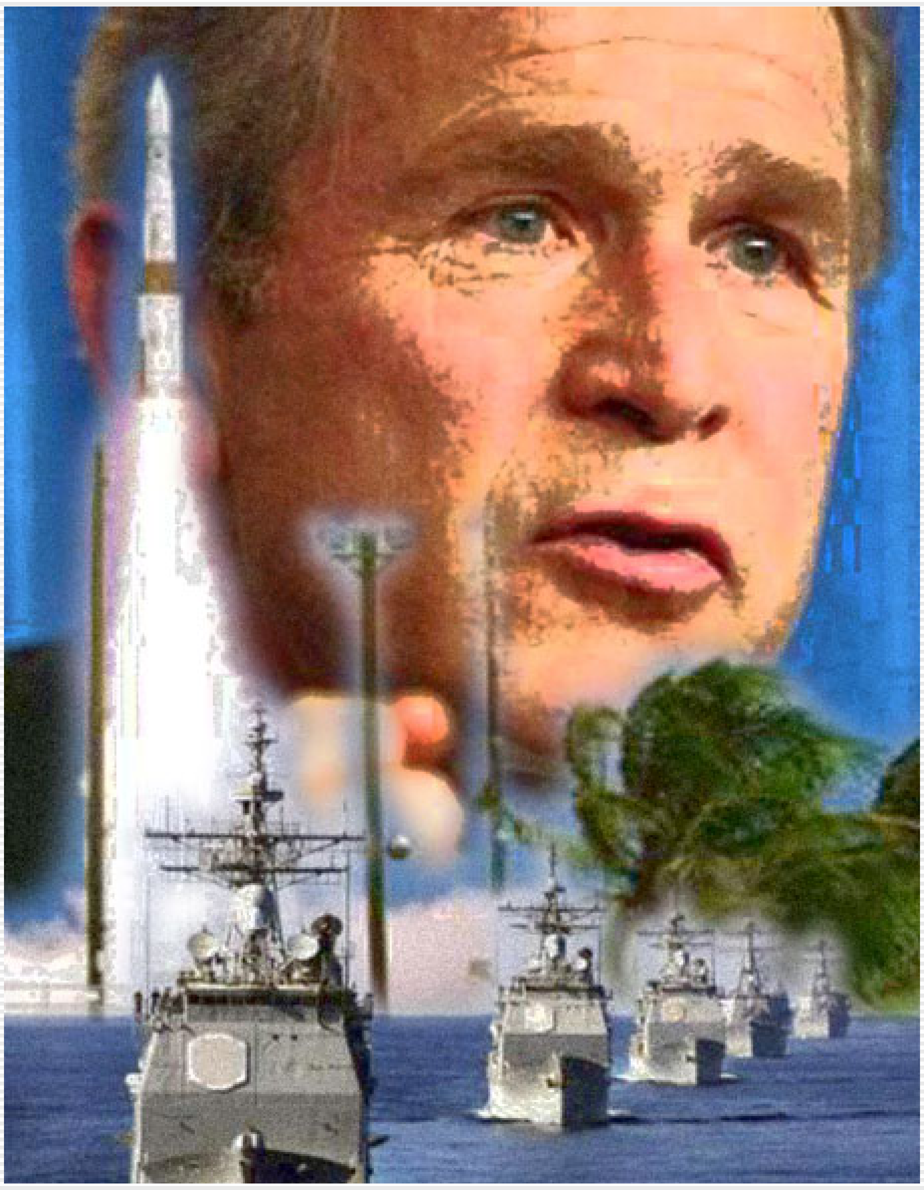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기자회견에서 중동문제가 악화되고 있는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하면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야만적인 침략행위를 단죄규탄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유엔안보리의 결의를 즉시 무조건 이행하며 팔레스타인자치지역으로부터 군대를 철수시키고 팔레스타인민족당국 수반의 신변안전을 위협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무력침공 규탄 레바논 대통령

레바논 대통령이 1일 성명을 발표해 이스라엘이 제14차 아랍국가연맹수뇌자회의에서 채택된 아랍평화계획을 거부하고 무력침공에 매달리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힘의 정책으로는 중동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적 공격을 반대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계속 아랍영토를 강점하고 있는 한 저들의 안전과 안정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미행정부가 아랍영토를 강점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계속 비호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반전반핵투쟁을 힘차게 벌여나가자



이북을 비롯한 7개국에 대한 부시정권의 핵공격계획이 드러남으로써 한반도에서 미국에 의한 핵전쟁이 이미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걸 말해주는데요. 미국이 이북에 핵타격을 한다면 그것은 이북만이 아닌 한반도전체에 대한 핵타격으로 된다는 건 삼척동자에게도 명백한 거죠. 땅덩이가 크다고 할 수 없는 한반도에서 핵무기가 폭발하게 되면 그 피해는 북과 남의 구별이 따로 없게 돼죠.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나면 죽게 되는 건 우리 민족이고 불모의 땅으로 되는 것도 우리가 사는 이 땅인 겁니다. 그러므로 온 겨레는 미국이 이 땅에서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핵전쟁을 도발하지 못하게 해야 하겠죠.

그럼 이 시간 첫순서로 ≪반전반핵투쟁을 힘차게 벌여나가자≫ 오일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반도에 핵전쟁의 먹구름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부시행정부가 새로운 핵공격계획인 ≪핵태세검토 비밀보고서≫를 작성발표한 이후 미국의 핵전쟁위협은 시시각각으로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시정권의 ≪핵태세검토비밀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북을 포함해서 7개국에 대한 핵무기사용계획을 마련하고 있고 특히 한반도 유사시 북에 대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원래 부시행정부는 이미 전에 새로운 국방정책이라는데서 유럽지역에 전개되어 있는 무력을 아시아지역에 배치하여 한반도 유사시에 대처해나간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핵전쟁수행의 중점을 한반도에 집중시키고 추진시켜 왔습니다. 최근 부시정권의 ≪핵태세검토 비밀보고서≫는 북에 대한 핵공격도 불사하겠다는 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놓은 것으로써 한반도에서의 핵전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시를 비롯해서 미국방장관, 미국무장관 등 미호전집단이 북이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중단할 때까지 최악의 상황을 염두해 둘 수밖에 없다느니 북이 반테러전쟁 2단계의 표적으로 될 수 있다느니 뭐니 하고 떠들어댄 것은 미국의 핵공격속셈을 그대로 드러내놓은 것입니다. 오늘 한반도에서의 핵무기사용, 북에 대한 핵공격이 하나의 가설이나 예측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로 되고 있다는 것을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1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된 대규모의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본질에 있어서 북침전쟁을 목적한 핵시험전쟁의 서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미국이 이같은 핵시험전쟁을 거듭 벌이고 ≪핵태세검토 비밀보고서≫에서 작성된 핵공격계획에 따라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일으킨다면 ****이 핵전장되게 할 것이며 아시아는 물론 세계가 핵전쟁의 참화속에 말려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민족은 핵전쟁의 희생물로 될 것이고 온 강토가 황폐화되리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한반도에서 핵전쟁은 결국 우리 민족, 민중에게 지난 6.25전쟁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재난을 가져다 줄 것이며 이 경우 민족공멸의 위험천만한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반도에서 핵전쟁책동을 저지파탄시키는 것은 우리 민족, 민중앞에 나서는 초미의 문제이며 가장 절박한 과제입니다.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의 운명을 우려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노동자이건 농민이건 청년학생이건, 지식인이건, 종교인이건 그 누구를 불문하고 핵전쟁의 가공할 엄중한 사태를 수수방관하지 말아야 하며 미국의 핵전쟁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시기 반전반핵투쟁을 벌여나가는 것은 미국의 핵전쟁의 피해로부터 우리 민족, 민중을 수호하고 이 땅을 지켜내기 위한 성스러운 애국애족적인 소행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운동단체들을 비롯한 여러 시민사회단체들, 각계층 민중은 미국이 일으키려는 핵전쟁의 위험성을 똑바로 인식하고 그를 예의주시하며 걸음마다 **, **하기 위한 반전반핵투쟁에 결연히 나서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부시정권의 ≪핵태세 검토비밀보고서≫가 철두철미 북을 선제공격하기 위한 미국의 핵전쟁계획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그 범죄적 내막을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하며 이를 단죄규탄하기 위한 반미반핵시위와 집회 등을 줄기차게 벌여 모든 국민들이 여기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운동단체들을 비롯해서 모든 시민사회단체들, 각계층 민중이 반전반미반핵투쟁에서 서로 연대하고 연합을 이룩하며 하나로 굳게 뭉친 단결된 힘으로 미국의 핵전쟁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야 할겁니다.

투쟁승리의 요인은 민중의 단결된 힘에 있습니다.

모든 투쟁과 마찬가지로 반전반핵투쟁에서도 반미의 기치아래 전 국민이 하나로 똘똘 뭉쳐 투쟁의 불길을 거세게 지펴나간다면 한반도에서 새로운 침략전쟁, 핵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도모하며 나아가서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한반도에 미국의 핵전쟁책동으로 인해 핵전쟁의 먹구름이 밀려오고 있는 상황하에서 침략과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단체, 모든 국민들은 단결의 기치를 더욱 높이 치켜들고 반전반핵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국의 소리 - 오늘의 연단
주체91, 4월 7일

조선중앙통신

주체 91(2002)년 4월 7일

중앙사진전람회 개막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탄생 90돐기념 중앙사진전람회가 개막되였다.

전람회장에는 주석의 숭고한 령도풍모와 불멸의 업적을 보여주는 170여점의 사진들이 전시되여 있다.

전람회장에는 태양의 미소를 지으시며 서계시는 주석의 사진을 모시고 ≪태양절은 만민의 명절≫, ≪동지는 혁명≫, ≪천만금을 주고도 바꿀수 없는 동지≫, ≪혁명적동지애는 필승불패의 원천≫, ≪혁명전사들에 대한 끝없는 사랑, 영원한 믿음≫, ≪숭고한 혁명적의리≫, ≪장군님 따라 천만리≫라는 표제밑에 사진들이 전시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정하철, 강능수문화상 등이 6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된 개막식에 참가하였다.

한편 **김일성**주석의 탄생 90돐기념 평양미술축전 신인미술전람회와 기념품전시회가 평양국제문화회관에서 개막되였다.

작곡가 김원균 서거 ≪**김일성**장군의 노래≫ ≪애국가≫ 창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위원회에서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며 로력영웅인 김원균의 서거와 관련한 부고를 5일에 발표하였다.

부고에 의하면 김원균은 심부전으로 주체91(2002)년 4월 5일 13시 85살을 일기로 서거하였다.

일제식민지통치시기 나라 없는 민족의 설음과 슬픔을 안고 생활난에 모대기던 그는 광복후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품에 안겨 음악적재능을 꽃 피울수 있었으며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애국가≫를 비롯한 시대의 명곡들을 창작하여 조선인민뿐아니라 온 세상이 아는 작곡가로 될수 있었다.

그는 조국해방전쟁시기 혁명적인 노래들을 창작하여 인민군대와 인민들을 전쟁승리에로 고무추동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으며 전후에는 좋은 음악작품들을 창작하여 인민들을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에로 불러일으키는데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였다.

부고에는 그는 비록 서거하였으나 주체적음악예술발전에 이바지한 그의 공적은 길이 남아있을것이라고 지적되여 있다.

일본에 있는 남조선 가수 김련자 평양에서 첫 공연

제2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하기 위하여 온 일본에 있는 남조선가수 김련자가 6일 4. 25문화회관에서 첫 공연의 막을 올렸다.

축전조직위원회 장철 위원장, 내각 사무국 정문산국장, 평양시인민위원회 량만길위원장 등 관

계부문 일군들, 시내 예술인들, 근로자들, 해외동포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출연자는 ≪내 나라 제일로 좋아≫, ≪도시처녀 시집 와요≫, ≪휘파람≫ 등 여러 곡목들을 자기의 고유한 창법과 기교, 독특한 음색으로 유순하고 흥취 있게 불러 관중들의 절찬을 받았다.

광복전 조선인민의 비통한 심정을 반영한 계몽기가요 ≪눈물젖은 두만강≫, ≪목포의 눈물≫ 등 종목들에서 출연자는 노래에 담긴 시대적감정을 잘 형상하였다.

출연자는 우리 민족이 좋아 하는 민요들과 애창곡들도 특색 있게 불러 관람자들을 감동시키였다.

공연은 계속된다.

평화자동차종합공장 준공식 참가대표단 떠나

평화자동차종합공장 준공식에 참가하였던 대표단이 7일 평양을 떠나갔다.

비행장에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송호경부위원장이 대표단을 전송하였다.

재중동포들 **김일성** 주석 탄생 90돐 기념도서들 출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탄생 90돐에 즈음하여 재중동포들이 기념도서들을 출판하였다.

청도인민출판사에서는 ≪민족대단결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주석의 로작묶음집을 출판하였다.

료녕민족출판사에서는 도서 ≪**김일성**주석과 려운형≫을 발행하였다.

도서는 애국지사 려운형선생이 반일독립운동의 길에 나선 때로부터 주석을 우러르며 민족적지조를 굽히지 않고 적극적인 활동을 벌린데 대하여 썼다.

도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와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선생과 그의 자녀들에게 돌려 주신 사랑에 대하여 감명 깊게 서술하였다.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총비서의 업적에 대한 토론회 진행 민주꽁고, 탄자니아

태양절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신 9돐, 조선인민군창건 70돐에 즈음하여 3월 27일과 30일 민주꽁고와 탄자니아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업적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되였다.

민주꽁고사회주의인민련합 총비서와 여러 인사들은 토론에서 위대한 **김일성**주석각하께서는 항일대전을 승리에로 이끄시였으며 건당, 건국, 건군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였다고 하면서 그이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높이 칭송하였다.

그들은 또한 위대한 **김정일**각하께서는 선군정치를 펼치시고 그 위력으로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시면서 조선의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현명하게 이끌어 나가고 계신다고 강조하였다.

주체사상연구소조 탄자니아전국조정위원회 서기장은 위인중의 위인이신 **김일성**주석각하는 위대한 사상과 탁월한 령도력, 고매한 인품을 지니시고 세계정치사에 빛나는 자욱을 남기신 인류의 태양이시라고 말하였다.

로작들에 대한 토론회 진행 네팔과 에티오피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인민대중의 역할을 높이는것은 자주위업의 승리를 위한 담보≫에 대한 연구토론회가 3월 30일 네팔에서 진행되였다.

까브레자력갱생연구회 위원장은 토론에서 **김일성**주석의 로작들은 네팔인민들과 세계진보적인류 모두가 따라 배우고 구현해 나가야 할 세계적인 귀중한 재보이라고 말하였다.

그이의 사상과 리념, 원대한 뜻이 담긴 로작들은 인민들의 념원을 반영한 완성된 혁명사상, 혁명리론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3월 16일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주체사상연구소조에서는 주석의 고전적로작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대하여≫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되였다.

토론자들은 **김일성**주석각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은 지난 세기 조선인민과 진보적인류의 운명개척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하고 력사의 새 시대, 자주시대가 펼쳐 지게 한 가장 중요한 사상정신적원동력이였다고 강조하였다.

태양절기념행사 여러 나라에서 진행

태양절에 즈음하여 3월 28일부터 4월 2일까지의 기간에 에티오피아와 방글라데슈에서는 기념집회가, 탄자니아, 로씨야련방, 리비아, 말레이시아, 이란에서는 조선도서, 사진전시회와 영화감상회가 진행되였다.

행사장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초상화가 모셔 져 있었다.

도서, 사진전시회장들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고전적로작들과 불멸의 혁명업적을 보여 주는 사진들이 전시되여 있었다.

영화감상회들에서는 ≪영원히 인류의 마음속에≫, ≪밝은 아침의 나라 조선≫ 등 조선영화들이 상영되였다.

행사들에서 연설자들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각하는 20세기가 낳은 위인중의 위인, 가장 걸출한 령도의 거장이시라고 하면서 그이에 대한 다함 없는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집회들에서는 **김정일**령도자께 드리는 편지가 채택되였다.

조선에 대한 련대성 조치를 취할것 천명 인디아공산당 총비서

인디아공산당 전국리사회 총비서 에이. 비. 바르단이 최근 부쉬가 조선을 ≪악의 축≫이라고 망발한데 대하여 격분을 표시하면서 인디아공산당은 앞으로도 조선의 사회주의위업을 옹호하는 련대성조치를 계속 취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총비서는 3월 30일 인디아공산당 제18차대회에 참가한 조선로동당대표단을 만났다.

석상에서 총비서는 인디아공산당은 **김정일**총비서동지의 현명한 선군혁명령도밑에 사회주의조선이 미제의 악랄한 고립압살책동을 짓부셔 버리고 있는데서 커다란 고무를 받고 있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생전에 자기들의 활동에 깊은 관심을 돌려 주시였다고 하면서 그는 인디아공산당은 올해 그이의 탄생 90돐을 성대히 기념하기 위한 조직적인 대책을 취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 비슈와나스에게 국제**김일성**상 수여

≪국제**김일성**상≫리사회가 1일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 비슈와나스에게 ≪국제**김일성**상≫을 수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열렬히 신봉하며 온 세계의 자주화와 평화를 위한 영광스러운 위업수행에 특출한 공헌을 한것으로 하여 이 상을 받게 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인덕정치를 철저히 구현하자

로동신문 사설 - 주체91, 1월 21일

우리 조국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정치로 하여 세상에 존엄을 높이 떨치는 21세기 정치강국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20세기 혁명의 년대들처럼 오늘도 무한대한 열정과 투지로 인민에 대한 위대한 사랑과 헌신의 서사시를 수 놓아 가고 계신다.

우리 인민들은 인민의 위대한 어버이를 령도자로 모신 크나큰 행운을 갈수록 가슴 뜨겁게 절감하고 있으며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인덕정치를 더욱 철저히 구현하여 강성대국의 휘황한 미래를 앞당겨 나갈 불 타는 결의에 넘쳐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의 인덕정치의 고마움을 깊이 느끼고 있으며 그 은덕에 충성으로 보답하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투쟁하고 있다. ≫

령도자의 위대성은 곧 정치의 위대성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가장 숭고한 인덕정치로 사회주의대화원을 가꾸어 나가시는 현 시대의 가장 걸출한 정치가이시다.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정치의 근본원리이다. 선군정치와 함께 인덕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내세우신것은 사회주의위업수행에 쌓아 올리신 **김정일**동지의 특출한 공적이다.

인민들이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심장으로 받들어 나가는 정치가 가장 우월하고 위력한 정치이다. 천만인민을 한품에 안아 운명을 지켜 주고 보살펴 주는 정치, 인민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도 따오고 천만금도 아끼지 않는 정치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인덕정치이다. **김정일**동지의 정치가 위대하기에 ≪고난의 행군≫과 같은 엄혹한 시련속에서도 우리의 정치체제는 추호의 흔들림도 없었다.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제도의 인민적성격이 과시되고 ≪내 나라 제일로 좋아≫의 노래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나온것은 인덕정치가 펼쳐 놓은 기적 같은 현실이다.

김정일동지의 인덕정치가 가장 리상적이며 성공적인 사회주의정치방식이라는 것이 더욱 뚜렷이 확증되였다.

오늘 우리 혁명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전면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 섰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민으로 되게 하실 대담한 구상과 목표를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고 계신다. 우리의 사회주의붉은기진군은 인민에 대한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랑과 믿음의 정치를 전면적으로 꽃 피우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김정일**동지의 인덕정치를 떠나서 강성대국건설의 승리적전진과 우리 인민들의 생활에서 일어 나는 그 어떤 전변에 대하여서도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인덕정치는 우리 혁명대오의 정치사상적위력을 비상히 강화하고 우리 조국을 사상의 강국으로 빛내이게 하는 원천으로 되고 있다.

혁명대오의 정치사상적위력은 단결에 있다.

간고한 시련의 나날에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언제나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위대한 혼연일체의 서사시를 수 놓아 오시였다. 끊임 없는 현지지도의 길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들에게 베푸시는 **김정일**동지의 뜨거운 사랑과 은정은 천만군민의 가슴에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이 더욱 억척 같은 신념으로 자리 잡게 하였다. 령도자와 인민의 끊을래야 끊을수 없는 혈연의 뉴대가 있었기에 여러해동안 계속된 ≪고난의 행군≫의 시련을 승리적으로 돌파할수 있었으며 가장 어려운 조건에서 강성대국건설의 튼튼한 토대도 마련할수 있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인덕정치는 우리 혁명의 전진에 무궁무진한 활력을 부어 주었고 우리 인민을 백절불굴의 신념과 의지의 강자로 영예 떨치게 하였다.

오늘 강성대국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키기 위한 우리 인민의 혁명적진군길에는 라남로동계급의 수령결사옹위정신이 높이 발휘되고 있다. 우리 인민처럼 자기 수령에 대한 숭배심이 열렬하고 단결력이 강한 인민은 없다.

혁명의 천하지대본인 불패의 일심단결이 세기를 이어 굳건히 계승되고 있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인덕정치의 빛나는 승리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인덕정치는 모든것이 흥하고 인민들이 남 부럽지 않게 사는 부강조국을 일떠세우게 하는 근본요인으로 되고 있다.

이 땅우에 강성대국건설의 전면적개화기를 마련하여 인민들이 실질적으로 덕을 보게 하시려는것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확고한 의지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낮이나 밤이나 우리 인민들을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하겠는가에 대하여 생각하시며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고 계신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현대적인 축산기지와 기초식품공장들, 전기화된 훌륭한 농촌문화주택들이 도처에 일떠서고 정양소, 휴양소, 료양소들이 수많이 건설된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만이 펼치실수 있는 애민의 숭고한 화폭이다. 나라의 경제형편이 그처럼 어려운 조건에서도 인민을 위한 사회주의적시책들이 변함없이 실시되여 온것은 기적 같은 일이다.

제국주의자들은 경제적봉쇄로 사회주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지지와 신뢰를 약화시켜 보려고 책동하였지만 파산을 면할수 없었다. 참다운 인덕정치가 실시되는 우리의 사회주의를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수 없다는 우리 인민들의 신념은 백배, 천배로 억세여 졌다. 사회주의강성대국의 휘황한 래일에 대한 우리 인민의 확신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인덕정치에 대한 신뢰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인덕정치는 우리 인민이 혁명적의리를 생명보다 더 귀중히 간직하고 장군님을 따라 혁명의 천만리를 끝까지 억세게 걸어 나가게 하는 생명수로 되고 있다.

우리 인민은 수십성상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따라 혁명해 오면서 인민에 대한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사랑과 믿음의 세계에 완전히 매혹된 인민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이시야말로 령도자이시기전에 위대한 어버이, 위대한 인간이시라는것이 우리 인민모두의 가슴마다에 한결같이 차고 넘치는 뜨거운 격정이다.

위대한 사랑속에서 위대한 혁명적의리가 나온다.

지난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나날은 위대한 령도자의 사랑과 믿음속에 자라난 우리 인민들의 혁명적의리가 얼마나 순결하고 뜨거운것인가 하는것이 남김없이 과시된 나날이였다. 시련이 아무리 엄혹하다고 하여도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믿음은 절대로 저버릴수 없으며 죽어도 혁명적의리만은 베고 죽겠다는것이 우리 인민의 철석의 의지였다. 강계정신을 창조한 자강도사람들의 가슴속에 가장 소중히 간직된것도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와 끝까지 운명을 같이 하려는 철석 같은 의지였고 맨손과 등짐으로 100여리 청년영웅도로를 건설한 청년들의 심장에 고동친것도 장군님의 믿음에 기어이 보답하겠다는 결사의 맹세였다.

사생결단의 각오로 당이 맡겨 준 혁명과업을 끝까지 수행한 라남로동계급의 일본새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대한 혁명적의리를 간직하고 싸워 나가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풍모에 대한 일대 과시로 된다.

앞으로 ≪고난의 행군≫과 같은 시련이 열백번 닥쳐 온다고 하여도 령도자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의리에는 추호의 드팀도 있을수 없다. 숭고한 인덕정치아래 자라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영원히 위대한 **김정일**동지와 생사를 같이 하고 운명을 끝까지 함께 해나갈것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인덕정치를 철저히 구현하여 강성대국건설을 앞당기려는 전체 인민의 비상한 각오와 열정으로 하여 우리의 사회주의붉은기진군은 갈수록 더욱 줄기차게 다그쳐 지고 있다.

올해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90돐, 조선인민군창건 70돐이 되는 해이다.

우리는 민족최대의 경사가 겹친 올해를 대를 이어 수령복을 누리는 우리 인민의 크나큰 행운, 령도자의 정치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기개를 남김없이 떨치는 력사적인 해로 되게 하여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인민관을 깊이 체득하여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일찍부터 일군들이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자면 인민들에 대한 관점과 립장을 바로 가져야 한다는데 대하여 가르쳐 주시면서 인민적풍모의 숭고한 귀감을 보여 주시였다. 지도자는 지혜도 령도력도 덕성도 인민대중속에서 체득하게 된다는것이 인민을 끝없이 귀중히 여기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신조이다. ≪인민을 하늘처럼 믿으시는분 그 하늘의 태양은 **김정일**동지≫라고 심장으로 노래 부르며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열렬히 흠모하고 따르는 우리 인민들의 숭배의 바탕에는 **김정일**동지께서 지니신 숭고한 인민관에 대한 매혹이 놓여 있다.

우리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인민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숭고한 세계를 깊이 체득하여야 한다. 일군들은 **김정일**동지께서 선군령도의 길에서 병사들과 인민들의 생활을 친어버이심정으로 따뜻이 보살피시며 몸소 보여 주신 숭고한 풍모를 적극 따라 배워야 한다.

오늘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인덕정치를 철저히 구현해 나가는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쳐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추켜 세우는것이다.

우리는 ≪경제강국건설의 자랑찬 성과로 민족최대의 명절을 빛내이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뜻 깊은 올해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 나는 자랑찬 승리의 해로 되게 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인민들의 생활을 결정적으로 높이시려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구상에는 비상히 높은 요구가 담겨 져 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우리 인민이 제일로 문명하고 유족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려는것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의도이다.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이룩되고 있는 대규모토지정리사업을 비롯한 놀라운 전변들과 도처에 일떠선 현대적인 창조물들은 우리 인민들에게 가까운 앞날에 세상에 부럼 없는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된다는 굳은 확신을 안겨 주고 있다.

우리는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통이 큰 작전을 펼쳐 나가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의도에 맞게 모든 일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경제사업, 인민생활과 관련하여 끊임없이 제시하시는 새로운 방침들을 깊이 연구하고 그 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해 나가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의도하시는 높이에서 인민생활문제를 풀어 나가는 사람이 오늘 당의 인덕정치실현의 기수이고 진짜배기 충신이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인민적인것, 대중적인것을 우선시하고 인민생활과 관련된 문제들을 제1차적인 과업으로 풀어 나가야 한다.

우리식사회주의는 인민대중이 주인으로 되고 있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이다. 인민이 바라는것이라면 하늘의 별도 따오고 돌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것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일관한 혁명령도원칙이다.

우리는 경제사업을 비롯하여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적인것, 대중적인것을 우선시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 나가야 한다 농업생산과 양어에 계속 큰 힘을 돌려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야 한다. 경공업부문에서 인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제일 많이 쓰는 생활필수품생산에 우선적인 힘을 넣으며 그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철도운수부문에서도 인민생활과 관련되여 있는것부터 우선적으로 수송하는 규률을 세워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인민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앞세워 풀어 나가는 관점에서 사업을 설계하고 전개해 나가야 한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회적시책들을 옳게 실시하여 인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차례지게 하여야 한다.

일군들이 언제나 대중속에 들어 가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며 대중을 위하여 뛰고 또 뛰는 인민적사업작풍, 헌신적복무정신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일군들을 위하여 인민이 있는것이 아니라 인민들을 위하여 일군들이 있다. 일군들이 대중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할 때 우리의 일심단결이 더욱 강화되고 인민들이 당의 인덕정치의 고마움을 뜨겁게 느끼게 된다.

(12면에 계속)

인민대중의 운명 개척의 과학적인 길을 명시하신 불멸의 업적

≪기념특강≫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위인의 풍모를 천품으로 지니시고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불멸의 업적으로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이시다 (제7회)
리종욱선생 – **김일성**종합대학 방송강좌 주체91, 4월 7일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간에 우리는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사상이론적 업적의 하나인 노동계급의 혁명사상 발전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하신데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사상이론적 업적 가운데서 인민대중의 운명 개척의 과학적인 길을 명시하신데 대해서 보겠습니다.

인민대중의 운명을 개척하는 위업은 이 행성의 모든 인민과 민족들의 최대의 관심사이며 최상의 목적입니다. 그런 것만큼 어느 시대, 어떤 사상이론가가 이룩한 공적이든 그 진가는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의 길을 얼마나 정확히 밝혀주는가 하는데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진보적인 사상이론과 혁명의 노선과 정책의 가치를 규정하고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에 얼마나 이바지하는가에 있습니다. 인류의 진보적 사상발전에서 커다란 발견과 전환을 이룩한 사상이론일수록 혁명의 정확한 진로를 밝혀준 노선과 정책일수록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에서 노는 역할과 의의는 더욱 큽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구현하시여 민족해방, 계급해방 뿐 아니라 인간해방혁명에 관한 사상과 이론을 전면적으로 밝히시고 전일적으로 체계화하시여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에 관한 과학적인 학설을 발전, 완성하셨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주체사상은 민족해방과 계급해방,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나서는 문제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인민대중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인 문제를 완벽하게 해명하여 주고 있는 백과전서적인 사상입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이 밝힌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에 관한 과학적인 학설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사회의 모든 계급과 계층, 그리고 지구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의 운명개척의 길을 전면적으로 명시한 학설입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무엇보다 먼저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에 관한 사상과 이론을 제시하시여 각이한 역사적 조건과 발전단계에 있는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셨습니다. 인민대중의 운명개척 과정은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와 지향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인민대중의 운명은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통해서 실현됩니다. 오늘 지구상에는 200여개의 크고 작은 민족국가들이 있으며 여기에는 수많은 민족, 종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은 모두 다 자주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우리 시대의 역사적 조건과 인민대중의 요구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시고 식민지 민족들이 자체의 힘으로 민족해방을 이룩하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실현하는 길을 새롭게 밝히시여 민족해방혁명이론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 인민들이 봉건적 예속과 외래자본의 예속을 동시에 청산하고 계급해방을 이룩하며 자주성을 지향하는 사회의 모든 계급과 계층을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게 하는 새로운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이것은 인민대중을 민족적 및 계급적 예속에서 해방하고 그들의 사회정치적 자주성을 실현해주는 올바른 길을 밝혀준 위대한 사상이론적 공적입니다.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을 이룩하고 사회 정치적 자주성을 실현하는 것은 인민들의 운명개척에서 역사적 전환점으로 되지만 그것으로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온갖 형태의 사회적 예속에서 해방할 뿐아니라 자연의 구속과 낡은 사회의 유물의 구속에서까지 완전히 해방하는 인간해방혁명을 실현해야 한다는 사상을 천명하셨습니다. 이것은 노동계급의 혁명사상과 이론이 세상이 나온 이래 일찌기 없었던 새로운 혁명이론으로써 사상사 발전의 견지에서 보나 인민대중의 해방투쟁사의 견지에서 보나 세계사적 발견으로 됩니다. 실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처음으로 밝히신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에 관한 사상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우리 시대의 인민들이 들고나가야 할 가장 올바른 불멸의 기치로 됩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으로 세계혁명이론과 전략전술을 제시하시여 전 세계적 범위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셨습니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매개 나라에서 민족해방과 계급해방 위업을 실현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할 뿐 아니라 전 세계적 범위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해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수행에서 세계혁명이 차지하는 지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해서 세계혁명의 본질과 그 승리의 합법칙적 노정을 독창적으로 천명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교시하셨습니다.

≪세계혁명은 전 세계적 범위에서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청산하고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을 실현하며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이상과 같이 교시하셨습니다.

세계혁명은 전 세계적 범위에서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청산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해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세계혁명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할데 대한 공동의 목적과 지향에 기초해서 세계적 범위에서 인민들이 벌리는 혁명운동입니다. 세계적 범위에서 벌어지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은 그 발전 단계와 당면한 투쟁과업에서 서로 일정한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이 모든 투쟁은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청산하고 자주성이 원만히 보장되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는 목적의 공통성으로 해서 다같이 세계혁명이라는 하나의 흐름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세계혁명과 매개나라 혁명은 서로 밀접히 연관되여 있습니다. 매개나라 혁명은 세계혁명의 한 고리로 되며 세계혁명은 개별적 나라들에서의 혁명의 승리를 통해서 실현됩니다. 세계혁명의 승리는 매개 나라들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 완전히 승리하고 점차 사회주의 건설이 확대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세계혁명 승리의 합법칙적 노정입니다. 그런데 매개나라들에서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주객관적 정세와 혁명발전 단계가 서로 다른 것만큼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동시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계혁명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승리한 혁명과 아직 승리하지 못한 혁명이 서로 지지하고 보충해야 합니다. 먼저 승리한 혁명이 자기의 경험과 모범으로 아직 승리하지 못한 나라들의 혁명을 도와주고 자기의 정치, 경제, 군사적 힘으로 세계 인민들의 해방투쟁을 적극 지원하는 것, 그리고 아직 혁명이 승리하지 못한 나라 인민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투쟁해서 제국주의자들의 압살책동으로부터 승리한 다른 나라 혁명을 보위하고 자기 나라 혁명의 승리를 앞당겨 나가는 것은 세계혁명운동 발전의 법칙이며 이미 인민대중의 혁명투쟁 과정에서 이룩된 훌륭한 전통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세계혁명의 본질과 그 발전 법칙을 새롭게 밝히셨을 뿐아니라 온 세계를 자주화하기 위한 사상과 이론을 제시하셨습니다. 현시대는 자주성의 시대이며 인류가 자주의 길로 나가는 것은 우리 시대의 기본추세입니다. 온 세계의 자주화는 세계의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이 온갖 형태의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나 철저히 자주적인 길로 나가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입니다. 이 위업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의 공동의 투쟁으로만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개 나라 인민들과 민족들은 국제사회의 한 성원으로서 자기 나라와 자기 민족의 자주성을 위해서 투쟁할 뿐아니라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투쟁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며 반제자주의 기치 밑에 단합된 역량으로 제국주의, 지배주의를 반대해서 힘차게 싸워나가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처럼 세계혁명의 본질과 합법칙성,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과업을 밝히셨을 뿐아니라 세계혁명역량편성의 원칙과 방도들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밝히시여 전 세계적 범위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앞길을 뚜렷이 명시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구현하시여 민족해방 계급해방 뿐 아니라 인간해방혁명에 관한 사상과 이론을 전면적으로 밝히시고 전일적으로 체계화하시여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에 관한 과학적인 학설을 발전 완성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수행에서 세계혁명이 차지하는 지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해서 세계혁명의 본질과 그 승리의 합법칙적 노정을 독창적으로 천명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의해서 운명개척의 과학적인 길을 찾은 세계혁명적 인민들은 오늘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고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의 가장 올바른 길을 밝힌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과 더불어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백전백승의 영도업적≫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美한인단체, ≪태양절≫ 행사 개최

재미동포전국연합회(회장 함성국 목사)는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4월 15일)을 맞아 동부지역협의회 뉴저지 사무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8일(현지시간) 밝혔다.

연합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평양에서 열리는 태양절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 30여명이 참석해 주체사상과 김주석의 업적 등을 발표하고 토론한다.

또 회원들은 오는 15일 주유엔북한대표부(대사 박길연)가 맨해튼에서 개최하는 기념식에도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미동포전국연합회는 오는 10일 협회 간부, 이산가족 등 40여명으로 구성된 ≪태양절≫ 미주 한인대표단을 구성, 평양으로 출발할 계획이다.

왕길환 기자
2002/04/08 연합뉴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일정 나왔다

오는 28일에는 4차 이산가족 방북단 100명과 취재진, 진행요원 등 모두 150명이 먼저 금강산에서 재북 가족.친척을 만나고 내달 1일에는 북측 이산가족의 남측 가족 500여명이 방북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8일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정부와 한적은 이같은 계획을 9일 오후 한적에서 열리는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확정, 12일께 북측과 연락관 접촉을 통해 4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일정을 짤 계획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일단 잠정적으로 이런 안을 세워두고 있지만 북측과 협의 과정에서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또 ≪상봉 준비를 차질없이 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미리 금강산 현지 답사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강산 관광객 모집 등을 맡고 있는 현대백화점 관계자도 ≪정부로부터 연락을 받아 28일 150석과 내달 1일 600석을 비워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속초항과 북측 장전항 사이를 오가는 유일한 배편인 설봉호는 전체 600석 규모로 정부의 금강산 관광 지원대책 발표 이후 관광객이 늘어난데다 4-5월 성수기가 겹쳐 예약 인원도 크게 늘어난 상태로 알려졌다.

특히 내달 1일의 경우 모그룹에서 노동절 행사 때문에 구두로 배편을 예약해놓은 상태였지만 이산 상봉 행사 때문에 양해를 요청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적에 따르면 4차 이산가족 방북단 100명중 지난 5일까지 4명이 연락이 되지 않고 1명은 몸이 아파 방북하기 어렵다는 뜻을 표명한 상태였지만 이후 4명은 모두 연락이 됐고 1명은 결국 방북을 포기했다.

방북을 포기한 이는 함경남도가 고향인 신용익(78)씨로 이번에 동생을 만날 계획이었다.

한적 관계자는 ≪신씨 대신 방북할 이산가족은 곧 인선위원회를 열어 확정할 계획≫이라며 ≪혹시 북측 이산가족의 남측 가족들이 오는 28일 방북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았는데 결혼식 등으로 가기 어렵다는 이들이 상당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충원 기자
2002/04/08 연합뉴스

김연자씨, ≪하나된 조국서 노래하고 싶다≫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참가차 평양을 방문중인 가수 김연자씨는 지난 6일 평양서 기자회견을 갖고 ≪하나된 조국에서 노래를 부르고 싶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방송이 8일 보도했다.

이 방송은 ≪(김씨가)언제나 통일열망으로 가슴 불태워 왔다면서 하루빨리 우리 조국이 통일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귀근 기자
2002/04/08 연합뉴스

가수 김연자 북에서 인기

일본에서 활동중인 가수 김연자(44)씨는 북한에서 ≪명가수≫란 평가와 함께 특별대우를 받고 있다.

김일성 주석의 90회 생일(4.15) 행사 가운데 하나인 제2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4.14-25)에 참가하기 위해 지난 4일 평양에 도착한 김 씨를 위해 북한은 5일 저녁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고위간부들과 예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연회를 베풀었다.

김연자씨는 6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첫 공연을 가졌고 앞으로 추가공연도 가질 예정이다.

북한방송은 이날 공연에 대해 북한 노래들을 ≪고유한 창법과 기교, 독특한 음색으로 유순하고 흥취있게 불러 관중들의 절찬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 ≪눈물젖은 두만강≫, ≪목포의 눈물≫ 등 일제 때 민족의 설음을 담은 가요들을 ≪시대적 정서에 맞게 잘 형상함으로써 관객들로 하여금 우리 민족의 피눈물나는 과거를 뼈저리게 되새겨 보게 했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7일 ≪축전 도시 평양에 울려 퍼지는 민족음악의 아름다운 선율≫이라는 제목으로 김 씨의 공연 소식을 전하면서 별도로 ≪인기있는 명가수 김련자≫라는 제목의 상자기사도 실었다.

노동신문은 그가 ≪천부적인 성악기교와 높은 형상능력을 소유했다≫면서 ≪명성 높은 민족음악 가수≫라고 칭찬했다.

지난해 4월 제19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 남한 가수로서는 처음으로 북한 무대에 오른 김연자씨는 당시 평양공연에 이어 함남 함흥에서 지방시찰중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위한 특별공연을 가졌다.

함흥 공연을 위해 자신의 전용열차까지 내 준 김 위원장은 공연 후 김 씨를 접견실로 불러 환담을 나누고 함께 사진촬영하는 등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김 씨에게 ≪평양으로 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오라≫고 말하기도 했다.

북한은 이례적으로 김 씨의 공연을 라디오와 텔레비전으로 녹화중계하는가 하면 신문과 잡지들도 관련 기사를 집중적으로 다뤄 ≪김연자 열풍≫에 불을 지폈다.

북한에서 김 씨가 인기를 끄는 것은 김 위원장의 정치적 배려와 김 씨의 가창력, 북한주민의 취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남북 정상회담 당시 남북간 대중가요 교류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좋아하는 남한 가수로 김연자, 이미자, 김세레나, 은방울자매, 조용필, 남진, 나훈아씨 등을 꼽았다.

북한 언론은 김 씨의 창법에 대해 ≪전통적인 민요창법을 바탕으로 현대적인 여러가지 창법을 잘 배합, 자기만의 ≪독특한 형상적 경지≫를 개척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김두환 기자
2002/04/08 연합뉴스

(10면에서 계속)

모든 일군들은 ≪우리≫라는 고귀한 칭호와 함께 불리우는 인민의 참된 충복이 될데 대한 당의 요구를 언제나 좌우명으로 삼고 살며 일해 나가야 한다. 일군들에게 있어서 인민들로부터 관직이 아니라 진정한 인민의 일군이라는 존경과 사랑, 믿음이 담겨 진 ≪우리≫라는 말과 함께 불리우는것보다 더 높은 평가는 없다. 모든 일군들이 라남의 일군들의 혁명적인 일본새를 본 받아 인민생활에서 걸린 문제들을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풀어 나가야 한다.

일군들에 대한 대중의 존경과 신뢰는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로 하여 받게 되는 값 높은 표창이다. 어렵고 힘든 일은 남먼저 맡아 나서고 성과와 락은 대중에게 돌려 줄줄 아는 일군, 인민의 행복속에서 자기의 행복을 찾는 일군이 위대한 장군님과 뜻을 같이 하는 순결의 동지, 선군시대 참된 혁명의 지휘성원이다. 일군들은 1950년대의 일군들처럼 언제나 대중과 사소한 간격도 없이 어울려 고락을 같이 하며 그들의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풀어 주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나가야 한다.

우리 당은 우리 사회의 령도적정치조직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인덕정치가 어떻게 구현되는가 하는것은 각급 당조직들의 역할에 크게 달려 있다.

우리의 강성대국은 령도자의 두리에 전체 인민이 사상의지적으로 굳게 단합된 강대한 나라이다. 당조직들은 인덕정치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여 각계각층 군중을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더욱 철통같이 묶어 세워야 한다. 어머니심정으로 사람들의 정치적생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며 온 사회에 숭고한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한 공산주의적미풍이 더욱 확고히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일군들과 당원들속에서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고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도록 하기 위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이 인민생활을 빨리 높이기 위한 투쟁에서 실적을 올리는것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인덕정치를 받들어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인덕정치는 우리 인민의 영원한 생명선이며 사회주의조선의 륭성번영의 기치이다.

령도자의 정치가 위대하고 령도자를 받드는 인민의 신념과 의지가 굳건하기에 주체의 강성대국건설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모두다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고 새 세기의 광명한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뜻 깊은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새로운 비약의 해, 인덕정치만세소리가 높이 울리는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 나가자. (끝)

차기 전투기 소동

21세기 ≪차세대≫ 전투기를 도입한다며 국방부는 1970년대에 개발된 ≪퇴물≫ F-15를 들여온다고 한다. 미군이 현재 운용하고 있는 F-15를 두고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1937년형 올즈모빌 승용차를 모는 것과 같다≫며 이렇게 오래된 비행기는 퇴역시켜야 정비비를 줄일 수 있다고 했다. 그것을 만드는 나라의 국방장관이 공개적인 인터뷰에서 고물이라고 지적을 하는 비행기를 한국 국방부는 차세대 전투기로 들여온다고 한다.

미국은 진짜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다. 공군은 F-22를, 국방부는 합동전투기 ≪제이에스에프≫(JSF)를 따로 만들고 있다. 한 걸음 나아가 첨단과학기술의 군사화를 주창하는 소위 ≪군사혁명≫론자들은 비행기를 넘어선 차세대 무기체제로 무인비행기와 소형 정밀미사일을 채택하라고 아우성이다. 비행기는 거대한 비행장이나 항공모함에 의존해야 하므로 미사일을 구비한 차세대 적에게는 안성맞춤의 공격대상이라는 것이다. 한국만 차세대 무기체제에 대한 논의에 귀를 막고 차세대 전투기로 퇴물을 들여온다고 하니 지나가던 소가 포복절도할 일이다.

한편에선 군사동맹이 중요한 요소라고 한다. 기존의 미국무기체제와의 상호운용성 때문에 미제 전투기를 도입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성능면에서 F-15보다 우월하다고 평가를 받은 라팔은 프랑스제이지만 프랑스는 엄연히 미국의 동맹국이다. F-15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 유로파이터는 영국.독일.이탈리아 등 미국의 유럽동맹국들이 ≪작당≫해서 만들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이다. 한국 국방부는 이 모순에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다.

무엇보다 차세대 전투기를 지금 사야 할 절박한 이유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북한에 뒤떨어진 한국의 군사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필수라고도 한다. 이상한 주장이다. 한국의 군사력이 북한보다 우월하다는 것은 미국이나 한국 학자들이 지적한 지 오래다. 지난 몇 년만 봐도 한국은 북한의 1년 국가예산에 맞먹는 액수를 국방비로 지출했다. 적어도 1972년부터 한국의 국방비는 북한을 능가했다. 지난 30년 동안 허리띠 졸라매고 군사력에 퍼부었는데 아직도 모자란다면 뭐가 잘못 된 것 아닌가. 아직도 북한은 1950년대, 1960

년대식 전차와 전투기를 운용할 뿐만 아니라 기체는 나무로 만든 프로펠러식 비행기마저 쓰고 있다. 물론 한국은 최첨단 전차와 초음속 제트기를 운용하고 있다. 더군다나 남.북은 바로 얼마 전 정상회담까지 열고 화해와 평화를 다짐하지 않았던가.

한편에선 차세대전투기가 필요한 것은 단지 북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언질을 준다. 유동적인 21세기 국제정세에서 불확실한 전략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충고다. 한국에서 전략적 불확실성이라면 아프리카나 아프가니스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닐 테고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 등을 이를텐데 지금 이 시점에 이들을 겨누는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이 국가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논리인가. 몇년 안에, 적어도 10~20년 안에 이들과 한판 붙자고? 이들과 한판 붙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 올 거라고? 이들을 겨냥한 무기체제의 도입은 역설적으로 그러한 불가피한 상황을 앞당길 것이다.

차세대 전투기 구입을 위해 국방부 쪽은 많은 준비를 한 모양이다. ≪전력소요제기≫라는 것을 만들어서 차세대 전투기에 필요한 요소들을 정하고 이에 대한 여러가지 평가기준을 마련했다고 한다. 그러나 궁금하다. 국방부는 차세대 전투기를 도입하고 나서 이를 운용할 전략과 전술, 작전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이 최첨단 무기체제를 도입해서 어떻게 기존 무기체제들과 통합을 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지? 지난 주 실시된 한미연합전시증원훈련을 보자.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발칸반도에서 평화유지군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유럽과 한반도에서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시험하기 위해 이번 훈련을 계획했던 것이다. 군사훈련의 내용과 일정조차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정해지는 한국에 독자적인 무기체제 구입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아닐까?

서재정/ 미국 코넬대학 정치학과 교수
국제정치학
2002/04/08 인터넷 한겨레

반환예정 미군기지 39% 환경오염의심

녹색연합은 8일 반환예정인 주한 미군기지의 39%가 환경오염을 한번 이상 일으킨 지역이라고 주장하고 정부측에 종합적인 환경평가 실시를 촉구했다.

녹색연합은 지난 90년부터 지난 3월까지 발생한 총 41건의 미군기지내 환경오염 사건을 분석한 결과, 한미간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미군측이 반환 예정인 28개 기지중 11곳이 환경오염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기름유출의 경우, 경기도 파주 캠프 에드워드가 2회, 원주의 캠프 롱과 캠프 이글이 각각 3회와 2회로 나타났으며 부산의 캠프 하야리아와 대구의 캠프 워커는 각각 기름유출과 석면오염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연합은 이에 따라 기름유출로 인한 토양오염과 중금속 및 각종 환경오염이 예상되는 파주, 동두천, 군산, 대구 등 9개 지역 13개 기지를 ≪환경오염 의심지역≫으로 규정하고 이 지역은 물론 반환예정기지 주변과 기지내의 토양오염및 지하수 오염 등에 대해 정부가 즉시 종합적인 환경평가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남권 기자
2002/04/08 연합뉴스

파업복귀 노동자 왜 자극하나

파업을 풀고 일터로 돌아간 노동자들에게 앞으로 파업에 불참하겠다는 서약서를 강요하는 몰상식한 일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발전회사 명의로 된 문제의 서약서에는 ≪서약을 어기는 행위를 할 경우 회사가 어떠한 처벌을 하더라도 감수할 것≫이라는 조항까지 명시되어 있다. 노조원들을 상대로 한 서약서 강요는 우리 사회의 노사관계가 얼마나 후진적인가를 단적으로 드러내준다.

우리는 38일에 걸친 발전노조 파업이 극적으로 타결되었을 때 민주노총 지도부가 양보에 양보를 거듭한 만큼 ≪파업 뒤가 중요하다≫며 정부의 ≪열린 자세≫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정부와 발전회사가 정반대로 노동계를 자극하는 외길을 걷고 있다.

정부는 타결 직후 ≪민영화 관련 교섭은 논의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합의함에 따라 발전회사의 민영화를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극적 합의≫의 정신과 배치된다. 정부는 타결 직전까지 ≪향후 단체교섭에서 민영화는 다시는 거론하지 않는다≫는 최종안을 고집했다. 그 최종안을 정부 스스로 철회했음에도, 민영화에 노조가 합의했다고 정부가 주장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자세이다. 파업을 계기로 민영화를 유보하자는 여론이 확산된 사실도 정부는 모르쇠하고 있다.

대화의 당사자인 노동계를 궁지로 몰아넣는 강공은 서약서에서 한층 노골적으로 나타난다. 서약서 강요는 군사독재 시대에나 가능한 낡은 발상으로 민주국가의 기본인 ≪양심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미 민주노총과 발전노조 지도부는 정부가 발전소 매각을 강행하거나 노동조합을 탄압한다면 다시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마치 노동계를 ≪시험≫이라도 하듯 자극할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서약서 강요를 즉각 철회하고 폭넓게 여론을 수렴하기 바란다.

2002/04/08 인터넷 한겨레 사설

미국의 ≪노무현 워치≫ 시작됐나

≪미국은 한국 대선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미 동아태차관보 발언록

제임스 켈리 미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최근 한국 차세대 지도자의 정치적 성향이 기존과 다를 수 있다고 언급해 주목을 받고 있다

조지 W. 부시 미국정부의 한반도정책 실무 최고책임자가 최초로 우리나라의 12월 대통령선거와 차기 당선자에 대해 언급하고 나섰다. 다른 나라의 선거에 대해 가급적 언급을 회피해온 미국의 외교관례상 이례적인 일이다.

미국 국무부의 제임스 켈리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66)는 4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아시아 소사이어티의 초청을 받아 행한 ≪미국의 동시아 정책에 관한 몇몇 이슈≫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우리나라의 12월 대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김 대통령이 물러나면서 한국의 미래에 대해 새로운 비전을 지닌 차세대 지도자들이 전면에 나설 것이다. 대체로 민주주의는 예측불가능한 발전 궤도를 그린다. 이 때문에 한국의 차세대 지도자는 한국에서의 미국의 전통적인 역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등 미국과의 관계를 재설정(redefine)하려고 나설지 모른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번 대선을 주의깊게 지켜보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한국의 차기정권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켈리 차관보의 이날 발언중 핵심요지는 ≪민주주의는 예측불가능한 발전 궤도를 그린다≫ ≪한국의 차세대 지도자가 한국에서의 미국의 전통적 역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등 미국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려고 나설지도 모른다≫고 말한 부분이다. 발언의 이면에서 미국정부의 상당한 긴장감을 읽을 수 있다.

국내 정가에서는 이같은 켈리 차관보의 발언이 요즘 국내에서 강하게 불고 있는 ≪노무현 바람≫에 대한 미국측의 강한 관심을 보여주는 증거로 해석하는 시각이 많다. 요컨대 미국정부가 ≪노무현 워치(Watch)≫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문제의 발언을 한 켈리 차관보는 다름아닌 미국 부시정부의 한반도정책 실무 최고책임자이기 때문이다. 켈리 차관보는 과거 로널드 레이건 공화당정권 2기인 지난 86~89년 국가안보회의(NSC) 아주 담당 보좌관을 지냈던 한국통으로, 그후 클린턴 정권시절에는 전략국제연구소(CSIS)의 태평양포럼 회장을 맡아왔다.

켈리가 태평양포험 회장직을 맡고 있는 동안에 CSIS는 ≪클린턴의 대북정책, 근본적 수정 필요≫(96년 1월), ≪미국의 대북유화정책 제2 한국전 유발 가능성≫(98년 10월)같은 반(反)클린턴적 보수정책 보고서를 잇따라 발표해온 미국 공화당의 명실상부한 싱크탱크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이 연구소는 공화당의 한반도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기로 유명하며, 키신저, 브레진스키, 슐레진저 등 미국 공화당 정권시절의 내로라하는 국무, 국방장관이 현재도 이 연구소의 이사들로 활동중이다.

부시는 집권후 곧바로 켈리를 국무부의 아태차관보로 임명했고, 그를 중심축으로 새로운 한반도정책을 수립했다. 실제로 켈리 차관보는 부시 대통령의 방한 직전인 지난 2월14일 미 하원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에 출석해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과 관련, ≪햇볕은 메마른 땅을 일굴 수 없다≫고 비판적으로 발언해 큰 물의를 빚기도 했다.

국내 정가에서는 현재 여야 대선후보들 가운데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노무현 후보가 연말 대선에서 집권하기 위해선 반드시 넘어야 할 산봉우리 가운데 하나가 ≪미국과의 관계 설정≫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켈리 차관보는 이날 강연에서 ≪우리는 이번 대선을 주의깊게 지켜보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한국의 차기정권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하기는 했다. 그러나 켈리 차관보의 이날 발언은 노후보에게 적잖은 무형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미국정부의 내정간섭적 선거개입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박태견 이승선 기자
2002/04/08 프레시안

민노당의 이념논쟁 제안

진보와 보수는 쉽게 정의내릴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그런데도 이 땅의 사람들은 ≪진보-보수≫의 이분법에 익숙해져 있다. 보수면 살아남고 진보면 죽임당했던 불과 반세기 전의 민족사적 비극 때문이다. 진보의 꼬리표, 보수의 딱지는 논쟁과 토론의 주제가 아니라 생과 사를 가르는 일이었다.

지난 7일 밤 민주노동당은 긴급논평을 발표했다. ≪…가까이는 연좌제를, 멀리는 조선시대 삼족멸문의 야만을 떠올리게 된다. 부모의 죽음을 본 아이는 반드시 복수의 한을 가질 것이니 살려둬서는 안된다는 야수적 야만 말이다.…≫

이 글을 쓴 펜 끝이 가리킨 것은 같은날 한나라당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이었다. 남경필 대변인은 이날 ≪좌익활동을 하다가 사망한 아버지를 지켜본 노무현 민주당 고문의 부인의 가슴 속에 무엇이 남아있겠는가≫라며 ≪예비 퍼스트 레이디≫에 대한 사상검증을 시도했다. 과거 역사적 비극의 희생자를 오늘의 정치권 이전투구를 위한 또다른 희생자로 삼은 것이다.

민노당은 8일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한나라당-민주노동당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이념논쟁을 제안했다. 스스로를 ≪진보정당≫이라고 안팎에 천명해온 민노당으로서 천박한 ≪색깔논쟁≫을 더이상 지켜만 볼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자신에게 불리하면 색깔론을 들이대고, 진보를 얘기하면 좌파로 규정하고, 좌파는 곧 불순한 것으로 매도하는 낡은 매카시적 수법은 이제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 ≪마녀사냥≫으로 변질되고 있는 최근 논쟁을 생산적인 정책대결로 승화시키자는 게 민노당의 제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진짜 진보≫인 민노당을 아울러야 한다고 말한다.

전세가 역전되자 상대를 물고 늘어지는 이인제 후보나, 대세론이 흔들리자 민주당을 통째로 좌파로 규정하는 이회창 후보, 공세에 밀려 과거의 소신을 번복하는 노무현 후보 모두 진정한 보-혁구도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피흘린 자리를 색깔론으로 덧내기보다 정책논쟁을 통해 새 살이 돋도록 하자는 민노당의 이야기는 오늘 모든 대선주자들이 귀기울여야 할 충고가 아닐까.

안수찬 정치부 기자
2002/04/08 인터넷 한겨레

윤민석씨, 특정정치인 겨냥한 노래 발표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어≫

FUCKING U.S.A로 화제를 모았던 윤민석씨가 이번에는 특정정치인 공박에 나섰다.

새 노래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어≫는 주인공의 이름은 나오지 않은 채 그의 신변에 대한 노랫말 일색이다. 호화빌라 논란, 손녀의 미국출산, 아버지의 친일행위, 아들의 병역면제, 지역감정악용 등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 수 있는 특정정치인을 들먹인 것.

송앤라이프(http://www.songnlife.com)에 등록된 감상평에는 ≪이회창≫이라는 이름이 거론되는 등 기사 내용만으로 파악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kino0070라는 아이디를 사용한 이에 따르면 ≪이 노래가 퍼지면 모씨는 고개도 못 들겠네. 이제 그는 물러 날 때가 됐지≫라며 최근 정치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이회창씨에 대해 평가했다.

윤민석씨는 ≪혹 있을지 모르는 명예훼손 소송을 대비해 노랫말에 사용된 가사와 관련 한겨레(21), 조선일보 인물자료, 오마이뉴스 기사 등 신문자료를 인용했다≫며 관련 자료를 링크시켜놨다고 덧붙였다.

한편,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어≫란 노래는 작년 9월, 10월 대학가에 화제가 되어 불려졌던 ≪이회창가≫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당시 이 노래는 밝혀지지 않은 한 ≪대학노래패≫에 의해 불려졌다.

백영순 기자
2002/04/08 유뉴스

부시 행정부를 곤경에 빠뜨리고 있는 한(조선)민족의 반제자주역량 (3)

차 례

▶(1) 북(조선)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전술

▶(2) ≪악의 축≫ 폭언이 노린 세 가지 목표

(3) 곤경에 빠지고 있는 부시 행정부

(4) 미국은 결국 무엇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가

(1) 북(조선)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전술 (3)

한(조선)반도 평화회담 특사 찰스 프릿처드(Charles Pritchard)는 2001년 7월 26일 미국 연방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에서 증언하면서 ≪북(조선)의 엄청난 재래식 군사력과 전진배치가 한(조선)반도에서 가장 가시적인 위협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우리는 동맹국인 남(한국)과 공조하여 그 위협에 대한 공동의 관심사에 대처할 결의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부시는 2002년 2월 1일 백악관을 방문한 요르단 국왕을 만난 자리에서 북(조선)에 대해 ≪재래식 무기를 일부 철수시키고 평화에 대한 의지를 명백히 선언하고 대량살상무기 수출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동방 삼국 순방에 나선 2002년 2월 17일 중간기착지인 알래스카주 엘먼돌프 공군기지에서 연설하면서 조미 정치협상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들 가운데 북(조선)의 재래식 무기를 뒤로 물리는 문제가 포함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일방적인 무장해제를 노리는 천만부당한 요구가 아닐 수 없다.

그러한 부당한 요구가 조미 정치협상에서 전혀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부시 행정부도 잘 알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1년 7월 24일 러시아의 ≪이타르타스통신≫과의 서면대담에서 ≪더욱이 미국의 새 행정부가 북조선의 미사일위협에 대하여 떠들다 못해 이제는 우리의 상용무력의 위협까지 들고 나오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우리에 대한 또 하나의 횡포한 도전≫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도 부시 행정부가 조미 정치협상이 재개되기 전에 그 협상에서 전혀 통하지 않을 것이 뻔한 요구를 자꾸 내놓는 까닭은, 그 요구가 통하리라고 예상할 만큼 어리석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아니고 그 요구를 기어이 관철시켜보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그러한 것도 아니다. 부시 행정부가 그런 따위의 부당한 요구조건을 자꾸 내놓고 있는 근본의도는, 조미 정치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상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미리 내놓고 나중에 협상이 일정에 오르면 의제를 합의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의 요구를 철회하는 척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양보를 얻어내려는 데 있다. 이를테면 자기들은 북(조선)의 재래식 무기를 뒤로 후퇴시키라는 요구를 포기할 테니 북(조선)은 주한미군을 철수하라는 요구를 포기하라는 식이다.

앞으로 조미 정치협상이 재개되면 부시 행정부는 그러한 부당한 요구를 꺼내놓지 못하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요구를 꺼내놓는 순간 조미 정치협상은 깨지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정작 조미 정치협상이 재개되면 부시 행정부가 북(조선)에 대해 일방적으로 무장을 해제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꺼내놓지 못하고 ≪유연성≫을 가질 것이라는 점은 이미 미국의 언론에서 몇 차례 흘러나온 바 있다.

2002년 1월 28일 워싱턴의 고위 외교소식통은 부시 행정부가 조미 정치협상을 재개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북(조선)이 원하지 않는다

→

광고

건축예술론

주체80(1991)년 5월 21일

1. 건축과 사회
1) 건축은 사회역사의 창조물이다
2)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축은 수령의 혁명위업에 이바지한다
3) 주체건축은 인민대중중심의 건축이다

2. 건축과 창작
1) 주체건축은 혁명적 수령관으로 일관되어야 한다
2) 건축을 우리 식으로 창조하여야 한다
3) 건축창조에서 당성, 노동계급성, 인민성을 구현하여야 한다
4) 건축창조에서 민족적 특성과 현대성을 옳게 결합시켜야 한다
5) 건축의 질과 경제성을 높여야 한다

3. 건축과 형성
1) 건축은 종합예술이다
2) 건축형성에서 기본은 조화성이다
3) 독창성은 건축의 본성적 요구이다
4) 다양성은 건축의 조형예술적 질을 높인다

4. 건축과 지도
1) 건축가는 창작가이며 작전가이다
2) 건축창작지도에서 집체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3) 건축창조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면 재래식 무기를 의제로 하는 논의를 뒤로 미룰 수 있다.≫고 한 걸음 물러섰다. 2002년 2월 14일 ≪뉴욕타임스≫는 부시 행정부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하면서 ≪부시 행정부가 조미 정치협상을 시작하게 되면 유연성이 생기게 될 것이다.≫고 했던 말을 보도하였다. 2002년 2월 21일 남(한국) 군부의 고위 당국자도 ≪재래식 무기를 현 단계에서 후방에 배치하라고 북한에 요구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적다. 한미 양국은 군사적 신뢰구축부터 먼저 추진키로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힌 바 있다.

(2) ≪악의 축≫ 폭언이 노린 세 가지 목표

부시가 북(조선)을 가리켜 ≪악의 축(axis of evil)≫을 형성하고 있는 세 나라들 가운데 하나라고 지목한 것은, 사전에 치밀하게 손익계산을 하고 나서 자기들이 준비한 각본에 따라 내뱉은 폭언이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02년 1월 29일 연방의회 상하양원 합동연설에서 부시가 읽었던 연설문의 초안에는 북(조선)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는데, 백악관이 최종적으로 연설원고를 손질하는 과정에서 북(조선)을 ≪악의 축≫에 포함시켰다고 한다.

외교통상장관 최성홍은 2002년 2월 8일 국회 통일외교위원회 답변에서 남(한국) 정부는 부시의 연설문에 북(조선)에 대한 ≪악의 축≫ 발언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고, 그 발언이 남북 및 조미 사이의 대화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의사를 미국 측에 전달하면서 발언내용을 조정해달라고 했으나 백악관이 연설원고 최종본에 ≪악의 축≫ 발언을 그대로 포함시켜 발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부시가 ≪악의 축≫이라는 폭언을 내뱉는 경우, 북(조선)을 심하게 자극함으로써 부시 행정부가 되레 역공을 받게 되리라는 점을 예상했을 것이며, 반대파들의 정치공세에 밀리고 있는 김대중 정권의 대북정책이 난파의 위기에 몰릴 수 있다는 점을 예상했을 것이며, 그 폭언이 남(한국)에서 반미자주화운동을 촉발시키는 기폭작용을 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 국제사회로부터도 비난과 반발을 받게 되리라는 점도 예상했을 것이다. 남(한국)의 언론에서도 부시는 그러한 용어(≪악의 축≫이라는 폭언을 뜻함)가 ≪국제무대에서 외교정치적으로 몰고 올 파장을 충분히 예상하면서 이를 국정연설에 포함시켰≫으며, ≪일반적 원칙론을 재천명했다기 보다는 무언가 외교정치적 목표와 속내를 포함하고 있는 단계적 조치라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관측≫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악의 축≫ 폭언으로 되레 자기들에게 불리한 사태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했으면서도 부시가 그러한 폭언을 내뱉은 것은, 그 폭언행위를 통해서 불리한 사태의 발생을 상쇄하고도 남을만한 더 커다란 목표를 노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부시 행정부가 ≪악의 축≫ 폭언에서 노리고 있었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 그 목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라고 생각된다.

첫째, ≪악의 축≫ 폭언에서 부시 행정부가 노린 것은 미국의 군사비를 증액하고 군비를 증강하는 목표다. ≪유에스에이 투데이(USA Today)≫ 2002년 1월 8일자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방장관 럼스펠드(Donald H. Rumsfeld)의 고위 보좌관들은 2001년 12월까지만 해도 미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에프(F)-22기 구입예산에서 10억 달러를 줄이고, 미 육군 병력을 3만명 감축하며, 크루세이더(Crusader) 이동식 곡사포 및 코만치(Comanche) 정찰헬리콥터 개발계획을 삭제하려고 생각하였으나, 미국 군부가 이러한 군비감축구상을 반대하는 바람에 럼스펠드는 군비감축을 포기하고 되레 군사비를 200억달러나 더 증액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럼스펠드는 첩보 및 통신장비, 컴퓨터 연결망을 위해 30억달러, 무인군용차량 프레데터(Predator)와 무인군용기 글로벌 호크(Global Hawk) 생산에 수억 달러, 전자식별장치와 로봇 등이 복합된 전차파괴용 무기 및 무선조종 대포 등 첨단 미래형 야전장비 생산에 5억달러, 지상 이동물체 감시용 위성레이더, 구형이 된 트라이던트(Trident) 원자력 잠수함 4척의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가 원래의 군비감축구상을 뒤집고 군사비를 증액하기 위해서는 연방의회를 설득하는 고비를 넘어야 하고 사회여론의 비판을 피해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미국을 무력으로 위협하고 있는 적대적 존재를 크게 부각시킬 필요가 있었다. ≪악의 축≫이 미국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군비를 증강해야 한다는 기만적 논리는 군비감축구상을 뒤집고 군사비를 확보하는 데 그렇게 이용되었다.

부시 행정부는 북(조선), 이란, 이라크 세 나라를 그러한 군사비 증액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선택되고 악의적으로 규정된 적대적 존재로 등장시키려고 ≪악의 축≫ 폭언을 대통령 연설문에 집어넣었던 것이다.

둘째, ≪악의 축≫ 폭언에서 부시 행정부가 노린 것, 더 정확히 말하자면 북(조선)을 ≪악의 축≫에 포함시킨 행위가 노린 것은 김대중 정권의 대북정책을 통제하는 목표다.

(내일 계속)

한호석(통일학연구소장) - 2002년 3월 15일 작성

하나 민족도 나 　 조국통일3대헌장

통일운동의 대하 (3)

21세기 김정일시대

위대한 **김정일**영도자께서는 이남의 반동적 통치배들의 민족분열영구화책동을 철저히 폭로하고 분쇄하도록 이끌어주시었다.

이남의 반동적 통치배들의 공공연한 북진통일정책은 70년대전반기에 이르러 두개 조선영구분열책동으로 탈바꿈하였다. 그것은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후 급격히 고양된 범민족적 통일열기에 반기를 들고나온 박정희의 평화통일외교정책에 관한 특별성명에서의 유엔동시가입안이 그것을 말해주었다. 두개 조선조작책동은 80년대에 들어와 전두환의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이라는데서 남북간의 관계를 국가간의 관계에로 만들고 민족분열을 영구화하려는 책동이 더욱 노골화되었으며 노태우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라는데서는 남북간의 관계를 국가간의 관계로 고착시켜 이른바 제도통일, 흡수통일을 이루자는 속심을 드러냈다. 문민의 탈을 쓴 김영삼은 동서냉전구조의 해체, 미제주도하의 새로운 국제질서수립이라는 복잡한 국제정세를 배경으로 하여 통일정책이라는 것을 들고나왔다. 그러나 그것은 반민족적인 민족분열영구화방안으로 북과 남, 해외동포들의 분노와 규탄을 불러일으켰다. 김영삼이 들고나온 신통일정책이란 결국 조국통일 3대원칙을 외면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존중, 자유민주주의 전면적 지배, 시장경제의 보장이라는 3대기조라는 것이 보여주듯이 남북관계를 국가간의 관계로 고착시켜 제도통일, 흡수통일을 이루려는 것이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께서는 이남의 반동적 통치배들의 민족분열영구화책동,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폭로하시면서 하나의 조선노선을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근본지침으로 천명하시었다. **김정일**영도자께서는 조선은 하나로 합쳐야 살고 둘로 갈라지면 살 수 없는 유기체와 같다고 하시면서 조선은 하나다라는 것이 자신의 확고한 의지라고 하시었다.

하나의 조선노선에 기초한 **김정일**영도자의 현명한 영도에 의하여 두개 조선조작책동의 반민족적 분열주의적 책동이 세계의 면전에서 낱낱이 폭로되고 통일운동이 더욱 장성발전하게 되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께서는 통일운동의 발전에 상응하게 범민족적인 통일운동주체세력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영도하시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께서는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대통일전선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이 북과 남, 해외동포들 속에서 폭넓게 전개되고 있는 속에서 1989년 7월 평양에서 소집된 해내외동포들의 조국통일촉진대회에서 조국해방 45돌이 되는 1990년 8월 15일에 판문점에서 북과 남, 해외동포들의 조국통일을 위한 범민족대회를 열 것을 제의하도록 하시었다.

이에 따라 1990년 8월 15일 분단 45년만에 북과 남, 해외의 광범한 각계 인사들이 참가한 민족적 대회합인 범민족대회가 열리게 되었고 11월에는 전민족적인 통일애국세력의 연합조직으로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이 결성되었다. **김정일**영도자의 현명한 영도에 의하여 범민족대회는 정례화되어 1991년 8월에는 판문점과 서울, 도꾜에서, 1992년 8월에는 판문점과 서울에서, 1993년 8월에는 판문점과 서울, 도꾜에서, 1994년 8월에는 평양, 서울, 도꾜에서 범민족대회가 소집되어 민족대단결과 고양된 통일열기를 만천하에 과시하였다. 이렇게 위대한 **김정일**영도자의 정력적인 영도에 의해 북과 남, 해외의 모든 겨레들이 하나로 뭉쳐 통일운동의 대하를 이루게 되었다.

(내일 계속)